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소멸의 위기를 넘어
활력있는 지방시대,
균형있는 나라로!



기간 : 2023.11.20.~11.25



국외정책 연수 결과 보고서

이 보고서는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역량강화분야】

우수 지자체 (아산시 대통령 표창) 국외 정책연수의 결과
보고서로

- ◀ 출발 전 교육을 위해 제작한 사전 자료집,
- ◀ 일본의 선진 방문기관 우수정책 발표자료,
- ◀ 연수 참가자의 토론내용과 일일보고서
- ◀ 방문기관에서 제공한 홍보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선진 우수사례를 정리 하였으며,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의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12

농정과 농촌활력팀장 오 민 환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목차

1. 연수소개	5
---------------	---

2. 연수내용	11
---------------	----

- 가. 인재육성, 고용창출, 문화창조 중심 기업참여 지역재생 : 파소나그룹 13
- 나. 산림자원 활용과 목욕 진흥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 23
- 다. 문화예술가 중심의 국제문화마을 조성 : 가미야마정 31
- 라. 공간 비즈니스 기업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 (주)나이스 43
- 마.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떠드는 의자박물관’ : 이시카와현립도서관 47
- 바. 대중교통과 생활기능 집적을 통한 콤팩트마을 만들기 : 도야마시청 55

3. 정책제언	65
---------------	----

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 67

- 1) 기업참여형 지역 재생 거버넌스 구축 67
- 2)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전문성 확보 68
- 3) 유희시설 전수 조사 및 공간재생 공모전 69
- 4) 공간비즈니스 기업에 의한 유희공간 활용 70
- 5)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71
- 6) 귀농귀촌 교육을 위한 도심 스마트팜 운영 72
- 7) 취약계층 일자리 및 주거지원 강화 73
- 8) 국제 문화예술인 초청을 통한 활력만들기 74
- 9) 세계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75

나. 농촌형 스마트시티 전략 77

- 1) 대중교통 기반 도심 압축도시 조성 77



2) 리빙랩을 통한 보행자구역 설치	78
3) 무료 전기 공공 시내버스 도입	79
4) 초고속 통신망 활용 농촌지역 IT기업 유치	80
5)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81
6) 시대변화에 맞는 공공도서관 혁신	82
7) 빈집활용 매입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83

다. 지역특화자원 활용 전략 85

1) 산림보육 개념을 활용한 산림복지 확대	85
2) 산림활용 촉진조례 제정 및 임업 육성	86
3) 산림과 결합한 돌봄시설(목욕) 확대	87
4) 지역산업 연계 커뮤니티대학 설립	88
5) 농촌지역 국제학교 유치	89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1. 연수소개

가. 연수개요

 명칭 :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

 주관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목적

- 균형발전 성공사례 기관 방문 및 현장학습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 기후위기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기업유치와 문화관광·지역개발의 방향성 정립

 기간 : 2023년 11월 20일(월)~11월 25일(토), 5박6일

 지역 : 일본

 인원 : 27명

 방법 : 국내 사전교육, 국외 선진기관 방문, 현지 워크숍 운영

 내용 :

연수기관	주요내용
파소나그룹 웰빙본부	인재육성, 고용창출, 문화창조 중심 기업참여 지역재생
도쿠시마 나무장난감미술관	산림자원 활용과 목욕 진흥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	문화예술가 중심의 국제문화마을 조성
(주)나이스	공간 비즈니스 기업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떠드는 의자박물관’
도야마시청	대중교통과 생활기능 집적을 통한 콤팩트시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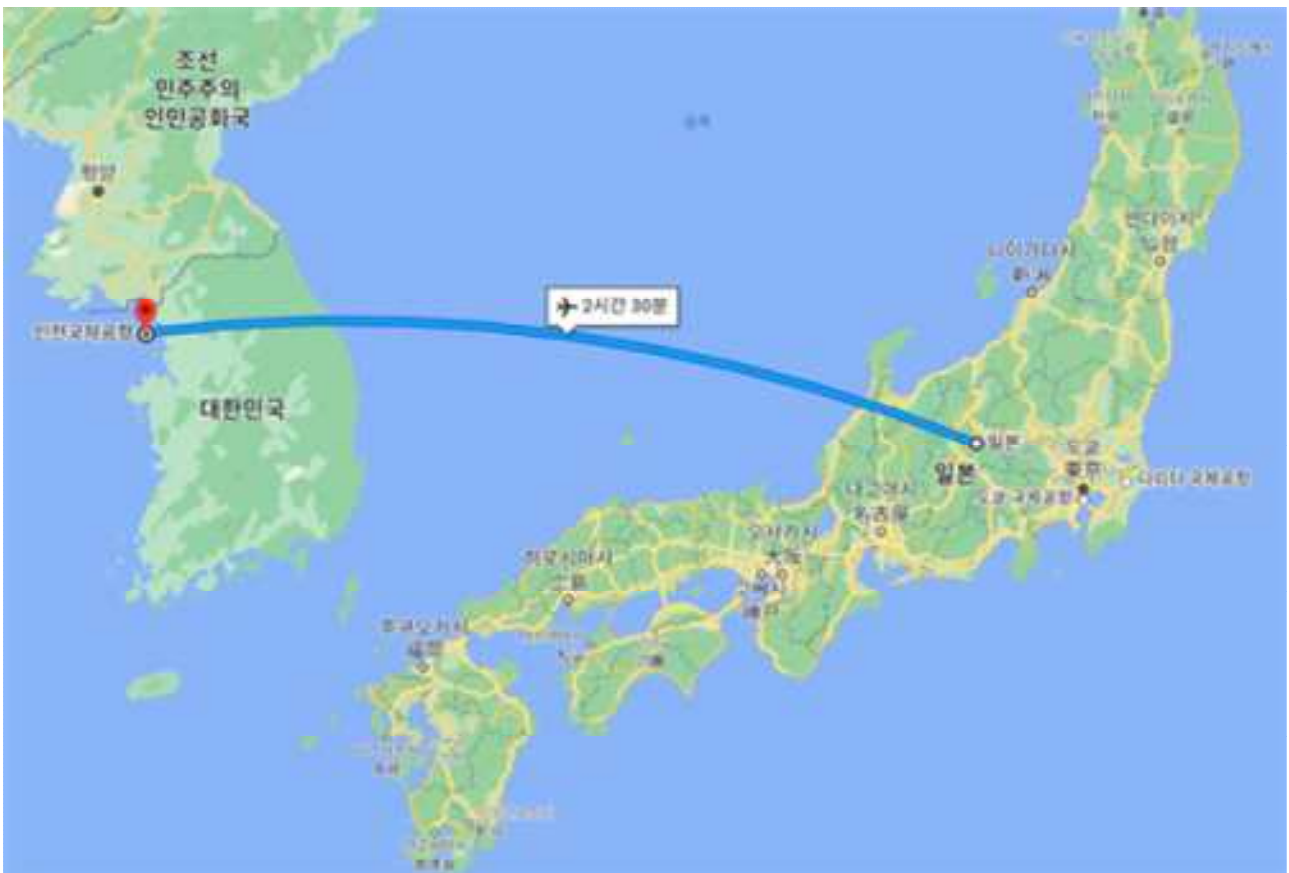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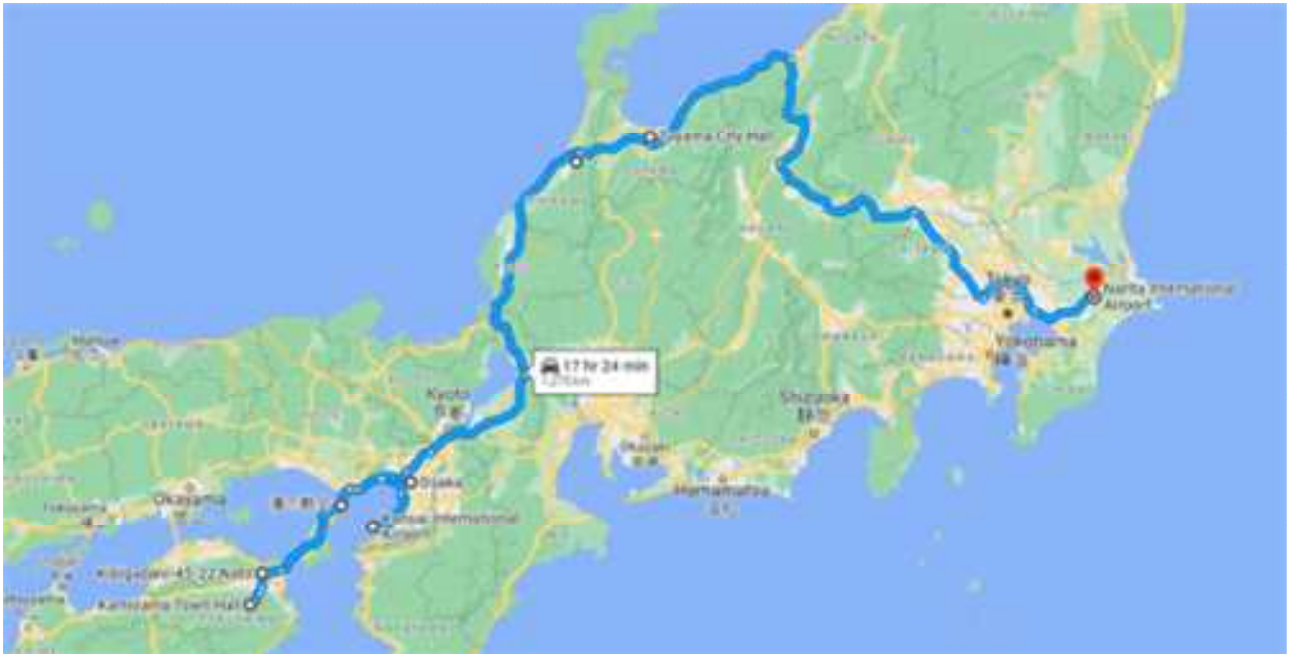
나. 참여자 명단

 지방시대위원회(2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3명), 지자체(22명)

	소속	부서	이름	직책
1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이중훈	과장
2	지방시대위원회	예산조정평가과	고덕현	전문관
3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균형발전평가센터	임수경	센터장
4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균형발전평가센터	손중길	연구위원
5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균형발전평가센터	박종성	수석연구원
6	부산광역시 서구	창조도시과	이병화	주무관
7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디자인과	어인숙	팀장
8	대전광역시	문화예술과	정서을	주무관
9	세종특별자치시	대외협력담당관	서지형	실무관
10	경기도 가평군	농업정책과	전미승	주무관
11	경기도 포천시	지역발전과	윤세현	팀장
12	강원특별자치도	예산과	장혜임	주무관
13	충청북도	체육진흥과	이다예	주무관
14	충청북도	행정운영과	김가은	연구원
15	충청북도 괴산군	미래전략담당관	박선영	주무관
16	충청북도 영동군	관광과	김영환	주무관
17	충청남도	해양정책과	김민정	주무관
18	충청남도 논산시	관광과	이세운	주무관
19	충청남도 아산시	농정과	오민환	팀장
20	전라북도	청년정책과	전은기	주무관
21	전라북도 김제시	기획감사실	강복이	팀장
22	전라남도	균형성과담당관	김주진	전문위원
23	전라남도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황재환	주무관
24	경상북도	체육진흥과	이수현	주무관
25	경상북도	산림자원과	심은숙	주무관
26	경상남도	산림휴양과	주동열	주무관
27	경상남도 김해시	건설과	김현경	주무관

다. 이동동선

 오사카-아와지시마-도쿠시마-오사카-이시카와-도야마-도쿄



라. 주요일정

차수	시간	주요 활동
1일차	오후	인천 출발
		오사카 도착 오사카-아와지시마 이동
2일차	오전	【방문연수】 파소나그룹 웰빙본부 인재육성, 고용창출, 문화창조 중심 기업참여 지역재생
	오후	아와지시마-도쿠시마 이동 【방문연수】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 산림자원 활용과 보육 돌봄을 위한 어린이 산림박물관 【현지워크숍1】 상일본의 지역소멸 대응전략과 지방창생 정책의 특징
3일차	오전	도쿠시마-가미야마 이동 【방문연수】 가미야마정 유명 문화예술가 중심 국제문화마을 조성
	오후	가미야마-오사카 이동
4일차	오전	【현장학습】 ㈜나이스 공간비즈니스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오후	오사카-이시카와 이동
5일차	오전	【방문연수】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체류형 도서관의 특징과 역할
	오후	【방문연수】 도야마시청 대중교통과 생활기능 집적을 통한 콤팩트시티 만들기 【현지워크숍2】 일본 지역소멸 방지 대응전략 및 시사점
6일차	오전	도야마-도쿄 이동
	오후	인천 도착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2. 연수내용

가. 인재육성, 고용창출, 문화창조 중심 기업참여 지역재생 : 파소나그룹

<p>파소나그룹 (株式会社パソナグループ) 兵庫県淡路市野島墓浦 (ひきのうら) 843 www.pasonagroup.co.jp +81 799 82 1820</p>	
---	--

방문연수	일본	아와지시마	2023.11.21.	9:00
------	----	-------	-------------	------

1) 연수내용

‘모두가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목표

- 연수단의 첫 방문 기관인 파소나그룹의 브리핑은 HRD 사업본부의 와타베 야스노리씨가 진행해 주었으며, 파소나그룹 소개와 파소나그룹의 지방창생사업, 본사 이전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해주었다.
- 파소나그룹의 창업자이자 대표인 남부 야우스키는 ‘육아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싶은 주부들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1976년 2월 파소나그룹을 창업했다.
- 자본금 360만엔, 직원 8명의 인재파견 회사로 시작한 파소나그룹은 2023년 5월 기준 직원 수 23,918명, 자회사 69개, 매출 3,725억엔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인재파견 부문으로 파소나그룹의 목표는 연령과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기업의 목표로 하고 있다.



인재유치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지방창생

- 일본은 1985년 파견법을 제정하며 파견 근로제를 본격 도입했고, 1990년대부터 버블경제 붕괴로 파견 근로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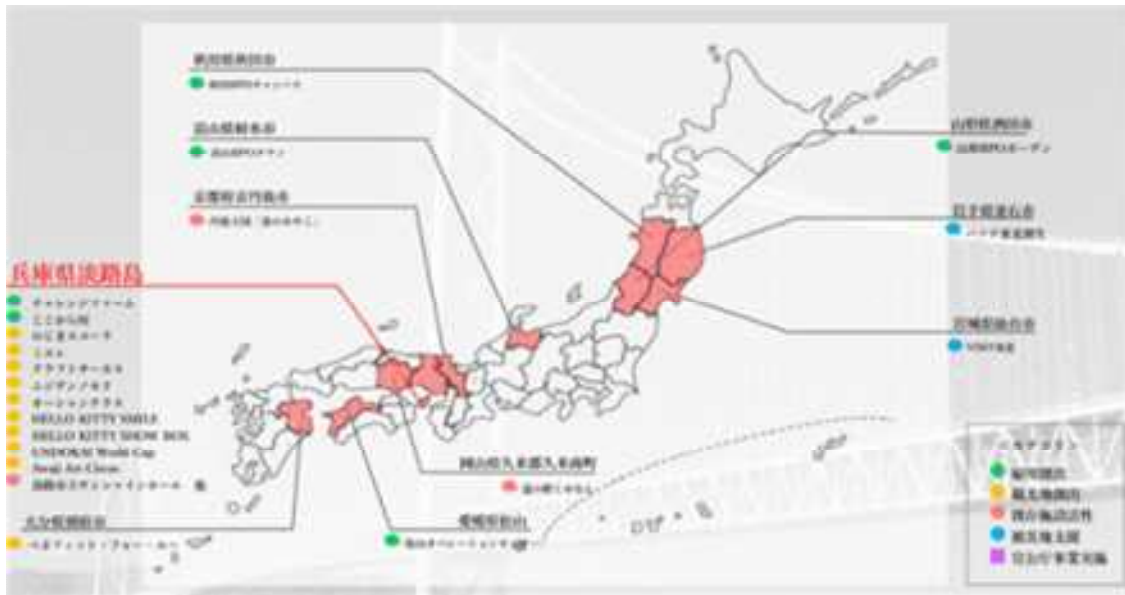
- 파견 근로자는 기업에 직접 고용되는 비정규직과는 달리 인재 파견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파견 업체에서 각종 인사관리를 받는 근로자로, 이러한 일본 인재파견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파소나그룹이다.
- 명실상부한 일본의 대기업으로 자리잡게된 파소나그룹의 사업 분야는 △전문가 서비스(인재 파견) △커리어 솔루션(헤드헌팅, 커리어 지원) △BPO서비스(위탁·도급) △HR 컨설팅(교육·연수 등) △글로벌 소싱(해외 인재 서비스) △아웃소싱(복리후생 업무 대행) △라이프 솔루션(가사대행·보육 등) △지방창생 솔루션(인재유치)이다.
- 현재 15개국에 59개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파소나그룹은 2000년에 들어서 지방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 도호쿠·교토고·아와지시마 등 전국 지자체 및 현지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인재 유치’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지방창생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파소나그룹은 2008년 아와지시마에서 농업 활성화와 청년 농촌 정착을 목표로 한 챌린지 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문화 △예술 △건강 △음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인 농업에 집중

- 1998년 가을 기준 일본의 실업자 수는 300만 명 이상이었고, 1999년 오부치 내각은 7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고용 창출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2001년 여름에는 실업률이 5%를 초과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 당시 일본에서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이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고용 문제의 해결을 위해 파소나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었다. 파소나그룹의 대표 남부 야우스키가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2001년부터 전국을 돌며 각 지방 지방쇠퇴의 현상을 시찰하기도 했다.
- 파소나그룹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쇠퇴와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고용 창출 △시설 재생 △관광지 창출 △재해지 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방창생 사업을 전개했다.
- 특히 파소나그룹이 집중한 것은 농업이었다. 그 이유는 도쿄에 집중된 일자리로 인해 지방의 쇠퇴, 저출산 고령화, 농업의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농업은 도쿄 등의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파소나그룹의 지방창생 사업 추진 지역]



아와지시마 농업 벤처 지원 프로젝트 ‘파소나 챌린지 팜’

- 1990년 293만 명이던 일본의 농업 종사자는 2001년 236만 명까지 감소했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라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거나 부모님의 농업을 이어받을 청년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다.
- 파소나그룹은 기간산업인 농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식품·가공·유통 산업 등 연관 산업의 고용 기회를 늘려 지방으로의 산업 분산과 고용의 유연화를 이루고자 했다.
- 2003년 시작한 파소나그룹의 농업 인턴 프로젝트는 아키타현 아오모리 와카마에에 도입되었고, 2005년에는 도쿄 본사 건물 지하에 세계 최초의 지하 농장인 Pasona O2를 만들어 도시 청년들에게 농업의 매력을 홍보하기도 했다.
- 2007년 도쿄에서 농업판 MBA인 Agri-MBA 농업 비즈니스 스쿨 과정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2008년에는 효고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아와지시마에서 농업 벤처 지원 프로젝트인 ‘파소나 챌린지 팜(Pasona Challenge Farm)’을 시작했다.

오전에 농업에 종사하고 오후에 예술활동 하는 ‘반농반예’

- 파소나 챌린지 팜은 종합 특구 사업으로서 경작 포기지를 활용해 취농 희망자를 최장 3년간 고용하고 농작물 재배기술과 농업경영을 교육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독립 취농 또는 농업 연관 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참가자 45명을 모집해 농업기술을 교육했고, 농업 체험을 위한 투어 참가자 25,000명 이상이 아와지시마를 방문했다.

- 챌린지 팜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반으로 2011년에는 리먼 사태 속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는 반농반예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 3년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평균연령 25.9세의 청년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일부가 아와지시마에 이주하는 성과를 냈다.



- 사전에 제대로 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형 성격으로 지원하는 국가정책과 달리 파소나 그룹의 농업 프로젝트는 이익 창출 부분에 대한 파악을 통해 취농자의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다.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노지마 스콜라’ 개장

- 챌린지 팜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가 폐교를 활용한 사업이다. 1988년 노지마 초등학교 설립 당시 노지마 지구의 인구는 1,344명이었다. 이후 계속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노지마 지구의 인구는 947명, 고령화율은 38.1%에 달해 학생 수 26명이던 노지마 초등학교가 2010년 폐교되었다.
- 시립학교인 노지마 초등학교의 폐교 후, 시 의회에서 학교 건물을 철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철거에 발생하는 비용 때문에 건물을 철거하는 것 대신 폐교 시설을 활용한 사업을 공모하게 되었는데 파소나그룹은 아래의 내용으로 공모에 참가했고, 제안이 선정되어 시에서 폐교 건물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 첫째,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여름 축제를 부활시키고 요리 교실, 노래 교실 등을 운영해 현민 교류 광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챌린지 팜, 반농반예 프로그램과 제휴를 통해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으로 활용한다.
 - ✓ 둘째, 6차 산업화의 시설로서 지역 산업 및 사업자와 제휴하여 채소 집하장, 선과장, 농산물 가공소, 직매소 등으로 활용한다.
 - ✓ 셋째, 관광 교류 거점으로서의 정비를 통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카페, 레스토랑, 빵집, 동물원으로 활용하고 이와 연계한 이벤트를 개최한다.
- 파소나그룹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노지마 스콜라’라는 이름으로 오픈했으며, 농(農), 식(食), 학(學), 예(藝)를 컨셉으로 6차 산업화의 모델이자 지역 주민 교류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부흥의 상징으로 재생시켰다.



- 2012년에 오픈한 노지마 스콜라의 1층은 상점과 베이커리, 2층은 레스토랑과 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 파소나그룹 본사를 아와지시마로 옮기는 중

- 아와지시마는 595.63km² 크기의 섬으로 아와지시, 스모토시, 미나미아와지시 등 3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약 129,000명, 52,7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이며 거제도보다는 약간 더 큰 정도로 과거에는 고립된 섬이었지만 세계적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가 디자인한 복합 문화 리조트 ‘유메부타이(淡路夢舞台)’가 생기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 아와지시마는 처음에 일본인들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었지만, 파소나 그룹이 이 지역에 획기적인 투자를 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 인력 전문회사인 만큼 인재 채용이나 경영에서 획기적인 시도를 하기로 유명한 파소나그룹에서 본사를 아와지시마로 옮기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는 것도 이 섬을 유명하게 만든 큰 이유가 된다.



❏ 2024년 5월까지 본사 기능과 1,200명 직원 이전 목표

- 아와지시는 2005년에 시가 되었는데 당시 인구는 약 51,000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41,900여 명으로 9,500명 이상 인구가 감소한 인구소멸지역이다.
- 특히 인구의 38.8%가 65세 이상으로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인 28%보다 10% 이상 높으며, 2005년 24개였던 아와지시마의 초등학교는 절반이 줄어 현재 11개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 높은 고령화율에도 불구하고 아와지시마는 △온난한 기후 △인접한 4개의 공항(간사이, 고베, 오사카, 도쿠시마) △문화유산 △오사카·고베·시고쿠 라는 큰 시장과의 거리적 이점 △2025년 오사카 박람회 유치 등의 장점을 살린 관광산업 육성으로 GDP 중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나 된다.
- 파소나그룹이 아와지시마를 선택한 이유는 2008년부터 아와지시마에서 지방창생 사업을 실시하면서 섬 내에 여러 개의 거점과 오피스 기능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 파소나그룹의 난부 야우스키 회장은 아와지시마가 고베와 오사카까지 30분에서 1시간 거리이고 4개의 공항과 5개의 세계유산이 근접해 세계적으로도 지역의 매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 ✓ 난부 회장은 여러 인터뷰에서 일본 사회가 처한 고령화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아와지시마와 같은 지방의 낙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파소나그룹은 2020년 9월 아와지시마로의 본부 기능 이전을 발표하고 2024년 5월 말까지 본사 기능과 함께 1,200명의 직원을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1,050명의 직원이 아와지시마로 이주했다.
- 파소나그룹의 본사 이전 목적은 △지속가능한 사업계획(Business continuity planning, BCP) △일과 생활의 조화 △꿈이 있는 신산업의 창조이다.
- ‘자연재해·팬데믹 등의 재난상황 대비’와 함께 ‘지방창생’, ‘신산업 창조’를 목표로 △다양한 사람들이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방식 △커뮤니케이션의 창조 △지속 가능한 새로운 기업을 실행하기 위해 아와지섬에서의 지속가능한 사업계획(BCP)을 추진하고 있다.

폐교, 농가, 토지를 구입해 편의시설과 리조트 등으로 개발

- 파소나그룹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효고현과 지역 활성화에 관한 「포괄 연계협정」을 체결하고 아와지시마에서 인재유치에 의한 독자적인 '지방창생'을 전개하고 있다.
- 아와지섬의 폐교, 농가, 토지를 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리조트 등으로 개발하면서 숙박 시설, 식당, 카페, 전시장, 캠핑장, 명상장 등을 운영하고, 폐교와 같은 유허부지나 아와지시마 현립공원을 임대해 명상, 글램핑, 스포츠,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바타사업, 건강섬 만들기도 추진하고 있다.
- 파소나그룹이 아와지시마에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으로는 니지겐 노모리, 노지마 스콜라, 음악섬, 아와지 아트 서커스 등이 있다.

[아와지시마 내 지방창생 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도]



개인의 경력과 가치창조를 지원하는 인재육성사업

- 아와지시마로의 본사 이전과 연계해 파소나그룹에서 힘쓰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인재육성 사업이다. 파소나그룹은 개인의 커리어 비전 구축이나 새로운 가치 창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비즈니스 역량을 키우고 신사업이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인 ‘학습장’을 제공하고 있다.
- 이를 위해 파소나그룹은 △지방창생 리더 육성 △여성간부 후보 육성 △회복 교육 3가지 주제의 액티브 러닝과 커리어 지원을 통해 사회에 변혁을 가져오는 도전적인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 ✓ 지방창생 리더 육성 : 인재유치를 통한 지방창생을 실천하기 위해 아와지시마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 추진
 - ✓ 여성간부 후보 육성 : 사회의 변화와 과제를 파악하고 시야를 넓히며 차세대 여성 간부 후보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 제공
 - ✓ 회복교육 강화 : 청년층부터 중년·시니어 층의 다양한 연령의 계층에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연수를 제공해 취업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재육성

한 부모 가정에 안정적인 수입과 자녀 교육 지원

- 한 부모 지원 프로젝트는 개인의 커리어 지원을 위한 파소나그룹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고 아와지시마에서의 취업과 생활을 희망하는 한 부모 가정의 부모라면 연령과 경험을 불문하고 지원할 수 있다.
 - 신청자는 서류전형과 면접, 적성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파소나그룹에 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며, 모집 분야도 지방창생 부문, 아웃소싱 부문, 영업부문, 관리 부문 등으로 다양하다.
 - 한 부모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입사한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과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풀타임 또는 단시간 근무 등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택 지원, 셔틀버스 등 생활 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 특히 파소나그룹의 교육 시설인 아와지섬 국제학교(Awaji Island International School)를 운영하며 2세~초등학생 연령의 자녀에게 영어, STEAM 교육, 음악, 댄스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직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 참고문헌: MENAISSANCE MAN. 파소나그룹(Pasona Group). m.blog.naver.com/anackne/110179286521 / 파소나그룹 발표자료

2) 질의응답

Q 2011년도에 3년간 300명을 반농반예 프로그램으로 모집했고 그 이후 약 10년이 지났다.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가?

◆ 반농반예 프로젝트는 2011~2013년까지 운영했고 그 이후에는 레스토랑 오픈 등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있다. 반농반예 프로젝트는 2011년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시작했지만 2013년 이후로 경기 상황이 개선되어 취업률이 향상되었고 더 이상 프로젝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Q 도교를 거점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현재는 지방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아와시지마 사례처럼 지역의 유흥시설 활용을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필요했을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 또는 지원이 있었는가?

◆ 본사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보조는 없었다. 다만 본사 이전이 아와시지마시의 인구 유입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시 차원에서는 회사에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Q 폐교를 리노베이션하거나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에 세제혜택 등 지방정부의 지원이나 별도의 혜택이 있는가?

◆ 정부 보조금은 아니고 현 또는 시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파소나그룹은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Q 파소나그룹은 인재파견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레저와 복합문화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에 대한 소득세 감액이나 영업장 개설을 위한 세금 감면 등 혜택이 있었는가?

◆ 보조금은 일부 있었지만 감세 혜택은 없었다.

Q 소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도 중요할 것 같다. 파소나그룹은 이주 인력의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아파트 건립을 촉진하고, 건립된 아파트는 회사 차원에서 임대해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회사에서 직접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현지 주민들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는 형태로 이주 인력에게 거주지를 공급하고 있다.

Q 파소나그룹의 아와지시마 이전은 정부의 정책이 반영된 것인가 아니면 대표의 결단으로 진행된 것인가?

- ◆ 2008년도에 농업 활성화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 효고현에서 유휴 토지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현 차원에서 보조금도 지원받았다. 이를 계기로 아와지시마에 여러 개의 거점을 보유하게 되었다. 추가로 회사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농업 활성화 사업을 위해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아와지시마로의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Q 지방창생 사업이 적자를 내고 있다고 했는데 적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방창생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해당하는 것인가?

- ◆ 지방창생 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초기 투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내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자인 상황이다.



나. 산림자원 활용과 목욕 진흥을 위한 어린이박물관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

<p>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 (徳島木のおもちゃ美術館) 徳島県板野郡板野町那東字キビガ谷45-22 tokushima-toymuseum.com 컨택: 松葉 洋(히로시 마츠바) +81 88 672 11122 matsuba@awawa.co.jp</p>	 <p>徳島木のおもちゃ美術館 TOKUSHIMA WOODEN TOY MUSEUM</p>
--	---

방문연수	일본	도쿠시마	2023.11.21.	14:3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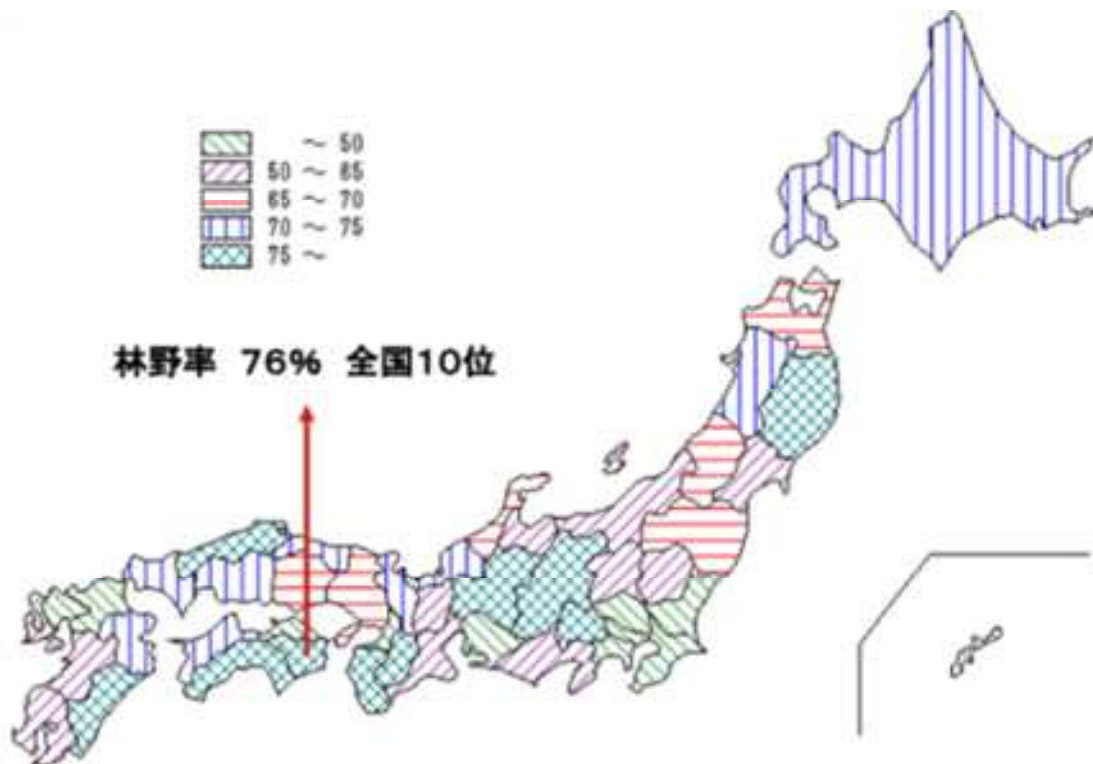
1) 연수내용

전국 유수의 삼림현이자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 전국 1위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브리핑은 도쿠시마현 농림 수산부 스마트 임업과의 이즈미 레이씨가 맡아 주었고, 미술관의 운영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아와와의 대표 마츠바 요씨가 동석했다.
- 이즈미 레이씨는 ‘도쿠시마현 삼림·임업의 현재와 나무장난감 미술관’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었다.
- 도쿠시마현의 인구는 23년 9월 기준 약 69만 5,000명으로 일본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도쿠시마현은 면적의 76%를 삼림이 차지하는 전국 유수의 삼림현으로, 목재 사용을 위해 조성한 인공림과 자연적으로 자라난 천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94%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민유림이다.
- ✓ 도쿠시마현의 임야율은 76%로 전국 10위이며, 인공림율도 60%로 10위권으로 전국 유수의 삼림현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지도에 표시한 지역별 삼림 비율]



- 수많은 나무 중에서도 특히 삼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73.2%로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잘 썩지 않고 가공하기 쉬운 ‘도쿠시마 삼나무’는 강도·내구성·아름다움까지 겸비한 고품질의 지역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쿠시마현 현산재 이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 ✓ 도쿠시마현 삼림의 구성 비율은 삼나무 73.2%, 노송나무 19.8%, 소나무 4.6%, 기타 침엽수 등이 2.4%이다.
- 2005년부터 시작된 도쿠시마현의 ‘임업 프로젝트’는 임업 종사자 증가, 임업 생산체제 강화 및 가공체제의 구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자연과 가깝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목육(木育)

- 도쿠시마현에서는 임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전 세대에 걸쳐 목재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무와 교류하고, 나무에서 배우고, 나무로 연결된다’라는 ‘목육’을 강조하면서 풍부한 삼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 ✓ 목육(木育)은 홋카이도에서 시작된 새로운 교육개념 및 교육용어로, 나무를 비롯한 자연과 가깝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 나무의 연령을 측정할 때 5년을 1개의 구분 단위로 하는 나이급 기준으로 도쿠시마현의 삼나무는 40~50년 된 10에서 12급 나무들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다.

- 수령 50년을 넘는 나무는 벌채·이용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즉 나무를 교체하는 삼림 사이클 관점에서도 목재 이용은 중요한 것이다. 삼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온난화 방지에 공헌하지만 나무도 나이가 들면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도쿠시마현의 목재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우드 쇼크’라 불리는 목재 가격 폭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도쿠시마현의 삼림자원은 일본 목재의 내수 공급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창출 자원으로써 주목받고 있다.

[나이급 기준 도쿠시마현의 삼나무 연령 구성 그래프]



목재의 등급에 따라 다양한 제품 생산

- 나무는 모양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데, 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목재는 A에서 D등급으로 나누어 활용하고 있다.
- 곧은 나무인 A급 목재는 가장 상품성이 높아 주택이나 제재 가공에 활용되고 있으며, 약간 굽은 B급 목재는 합판으로 제작한다. 굴곡이 많아 사용이 어려운 나무 C, D 등급의 목재는 가루를 내어 칩 가공, 종이 제작, MDF, 연료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임업의 활성화와 육림 개발 위해 설립한 어린이 미술관



- 2021년 10월 개장한 전국 최대규모 산림박물관인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은 임업의 활성화 및 육림의 보급과 개발을 위해 설립한 미술관이다.
- 전국 최초의 현립 장난감 미술관이자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모범사례로 임업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설이기도 하다.
- ✓ 도쿠시마 나무의 장점을 알리고 숲과 나무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배우고 체험하는 목욕 활동의 핵심 거점으로 다양한 나무장난감을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미술관으로 설계했다.

숲과 나무 주는 혜택을 배우고 체험하는 목욕 활동의 핵심 거점

- 시설의 건축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을 포함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성된 환경이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가장 큰 특징이다. 나무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나무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뛰어놀면서 나무의 장점을 오감으로 느끼고 자연을 가까이 느끼게 하는 것이 목욕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은 ‘장난감은 아이가 태어나 최초로 만나는 예술이다’라는 도쿄 장난감 미술관의 이념을 바탕으로 나무장난감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감성과 창조력을 기르는 공간을 만들었다. 미술관에는 0~2세의 영유아와 엄마와 아빠가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아기 육림광장’ 등 여러 시설을 갖추고 있다.
- 미술관에는 목욕 강사나 육아 보육 전문가인 직원들이 상주하며 나무장난감과 놀이를 통해 방문자들이 나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지역 육아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이처럼 나무장난감 미술관에서는 놀이와 보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매개로 임업 관계자와 육림 단체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육림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목욕’ 융합 지역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 미술관을 건축하는데 사용된 목재의 99%는 도쿠시마에서 조달했으며, 현 내 20개의 목재소의 목재와 제품을 활용했다.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디자인적 특징은 계단식 논, 농촌 풍경 등 도쿠시마의 자연을 재현해 놓았다는 것이다.
- 지상 1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1,568㎡ 규모의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건립비용은 약 4억 8천만 엔으로 부수비용을 합친 총비용은 6억 7천만엔 가량이 투입되었다. 현재 4억2천만엔, 지방창생 국비 보조금 1억8천300만엔, 그 외 현비로 구성되어 있다.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운영은 도쿠시마현의 지정 관리자 제도에 따라 ‘주식회사 아와와’가 맡고 있다. 아와와의 미션은 ‘도쿠시마를 건강하게 하자’는 것으로, 도쿠시마에서 10년 이상 육아 지원 정보지인 ‘와이어 마마’의 발행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운영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 ✓ 주식회사 아와와의 운영 범위는 △장난감 미술관의 이용에 관한 업무 △장난감 미술관의 시설, 물품 등의 유지 관리 업무 △장난감 미술관의 사용료의 징수 업무 △목욕의 보급 계발 및 현 산재 홍보 업무 △목욕에 관한 단체 등의 교류 및 제휴 촉진이다.
- 아와와는 자사 매체인 와이어 마마와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의 목적인 ‘목욕’을 융합해 지역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미술관을 목욕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참고문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일본사무소). 2022.6. 일본 현지 동향 및 지역활성화 사례

2) 질의응답

Q 건축 공사비가 4억 8천만엔이라고 했는데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였는가?

◆ 원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형태로 내부 공사를 7개월 정도 했다.

Q 전에 있던 건물의 용도는 무엇이었는가?

◆ 공원 내부에 있는 20년된 전시관으로 만화경 시설이 있었다. 그런데 만화경이 고장 나서 전시관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면서 나무장난감 미술관으로 리모델링한 것이다.

Q 공공이익 달성도 목적이지만 그래도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수익이 발생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연간 유지비용과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 위탁비용으로 연간 7천만엔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50%는 입장료 수익으로 충당하고 있고 나머지 50%는 현에서 지원받고 있다.

Q 일본에 민간림이 많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민간림을 산림조합에 위탁경영하는 경우, 잡목 제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일본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가?

◆ 일본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어서 정부 보조금을 활용해 삼림을 유지 관리하고 있다.

Q 해외에서 값싼 목재가 수입되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일본의 목재 활용을 위한 '현산제 촉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 목재 이용에 있어 사업자 등 산림업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세부 내용은 삼림 인재육성, 나무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에는 나무를 홍보하고 지원해 주는 목욕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Q 지역별로 나무장난감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관마다 차별화되는 점이 있는가?

◆ 각 지역별 문화와 특산물 등 지역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바다가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술관은 나무로 배 모형을 만들어 인테리어에 활용하고 있다.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은 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의 미술관과 차별화된다. 다른 지역의 나무장난감 미술관은 민간 또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다.

Q 목욕이라는 단어가 인상적이었다. 나무를 통해서 보육을 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게 맞는가?

◆ 목욕은 홋카이도에서 만들어진 개념이지만 도쿠시마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일본 전역에서 교육, 보육 등의 목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다. 문화예술가 중심의 국제문화마을 조성 : 가미야마정

<p>도쿠시마현 가미야마정 (神山町)</p> <p>〒771-3395 徳島県名西郡神山町神領字本野間100 www.town.kamiyama.lg.jp 컨택: 馬場達郎(바바 다츠로) +81 88 676 1111 baba@tsunagu-local.jp</p>	
---	---

방문 연수	일본	가미야마	2023.11.22.	9:00
-------	----	------	-------------	------

1) 연수내용

마을을 미래세대와 연결하는 가미야마정 창생전략

- 연수단은 가미야마 마을의 농촌환경개선 센터 안에 있는 미팅룸에서 이번 연수의 브리핑을 맡은 가미야마 마을창생 프로젝트 담당자 마즈다 바바씨를 만났다.
- 마즈다 바바씨는 가미야마정 출신으로 도쿄의 은행에서 6년간 근무하다 2012년 고향인 가미야마정으로 돌아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2016년부터 지방창생 업무를 담당하다가 2021년부터 가미야마 츠나구 공사의 대표를 맡아 3년째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 마즈다 바바씨는 ‘가미야마정 창생전략, 마을을 미래세대와 연결하는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가미야마 마을과 가미야마의 지방창생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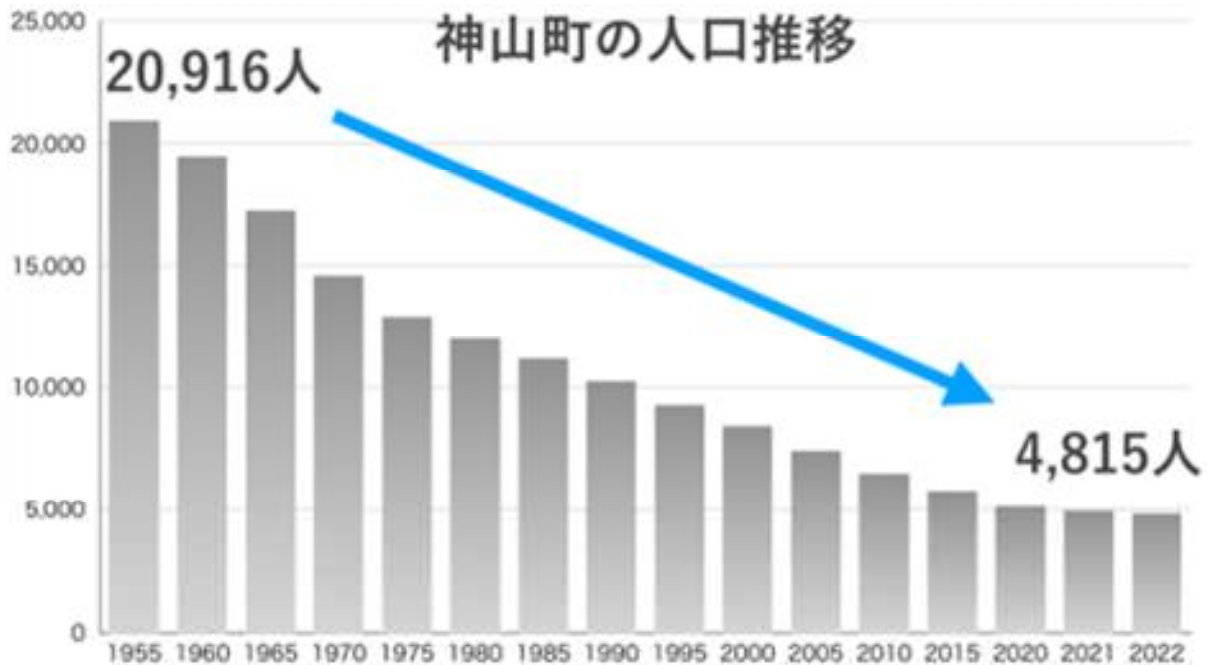


인구 4,846명, 고령화율 52.9%의 인구소멸 위기

- 가미야마는 일본 시코쿠섬에 위치한 총면적 173km²의 농촌 마을로 오사카에서 약 2시간 반, 도쿄에서 약 2시간 소요되는 대도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 일본의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소멸에 직면한 마을로 1955년 약 2만 1천 명을 정점으로 2010년에는 6,000명까지 감소하게 되었다.

[가미야마의 인구 감소 그래프 (출처: 가미야마정 발표자료)]



- 2023년 1월 기준 가미야마의 인구는 4,846명까지 감소했으며, 고령화율은 52.9%나 된다.

새로운 인구를 유입해 인구 구성의 질을 높이는 것이 전략

- 그러나 가미야마는 단순히 인구감소를 되돌리거나 지연시키는 대신, 인구가 줄면 커뮤니티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이 더욱 긴밀하게 결속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한 ‘창조적 인구감소’ 전략을 택했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새로운 인구를 유입해 인구 구성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 가미야마의 전략이며, 이런 전략은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 가미야마는 웹디자이너, 컴퓨터 그래픽 디자이너, 예술가, 요리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고 있는 곳이 되고 있다.
- 지금 가미야마는 도쿠시마현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 출신의 청년들도 찾아오는 산골 마을이 되었다. 마을 재생 사업을 중심으로 인구감소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모범사례로 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국제교류협회 결성, 외국어 강사 외국인 유치

- 가미야마의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노력은 30여 년 전 ‘가미야마 국제교류협회’의 설립자인 오오미나미 신야가 국제교류를 성사하며 시작됐다.

- 가미야마 출신으로 1977년부터 2년간 미국 스탠퍼드 대학원에서 유학하며 큰 자극을 받은 오오미나미는 가미야마를 실리콘밸리와 같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가미야마로 돌아왔다. 오오미나미는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30명의 방문단이 1991년 미국을 방문해 교류한 것을 계기로 1992년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미야마 국제교류협회를 결성했다.
- 이듬해 협회는 일본에서 외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가미야마에 유치했고, 이를 마을 주민들이 외국인들에게 익숙해지는 계기로 삼아 가미야마를 국제문화 마을로 만들고자 했다. 이런 계획이 1999년 시작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Artist in Residence)’로 확장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5년 기간의 정부 사업으로 가미야마 면사무소와 협회가 함께 진행했다.

예술가와 주민이 교류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는 외국인 예술가가 두 달간 가미야마에 체류하며 주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은 유명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보다 예술가와 주민이 교류하게 하는 것이다.
- 초청 작가들은 레지던스 거주 기간 동안,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을 제작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 정부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협회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당시에는 법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을 받을 수 없었다.

- 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민간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법인 ‘그린밸리’로 재탄생해 마을을 찾는 외지인의 이주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20년까지 23개국 80명의 예술가 방문

- 2005년에는 일본 총무성의 ‘광섬유망 설비 정비사업’으로 가미야마에 고속인터넷 회선이 설치되면서 가미야마에도 빠른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었다.
- 2008년 그린밸리가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웹사이트 ‘인 가미야마(in Kamiyama)’를 만들었고, 가미야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주민들이 거주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서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홍보를 위해 제작한 웹사이트가 가미야마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 가미야마는 일본 국내외에서 3~5명의 아티스트를 모집해 매년 8월 말부터 약 2개월여의 기간 동안 체류하며 작품을 제작·전시하는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고, 2020년까지 23개국 80명의 예술가가 가미야마를 다녀가는 성과를 올렸다.

명함관리 IT기업 산산(Sansan)의 위성사무실 유치



- 2010년에는 빠른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IT업무의 특성 덕에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명함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T기업 산산(Sansan)의 위성사무실을 유치하게 되었다.
- 산산의 대표인 테라다는 인터뷰에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주재하는 시기에 실리콘밸리의 업무수행 방식에 자극을 받았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상적인 자연환경 속에 업무를 본다는 것이었다. 실리콘밸리는 시골이어서 조금만 나가면 광활한 푸른 초원이 나타나고 사무실도 넓고 직원은 근처에 살기 때문에 통근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 엔지니어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잇달아 내놓는다." 라고 밝혔다.
- 산산의 이주를 시작으로, 이후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도심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16개의 위성사무소를 가미야마에 설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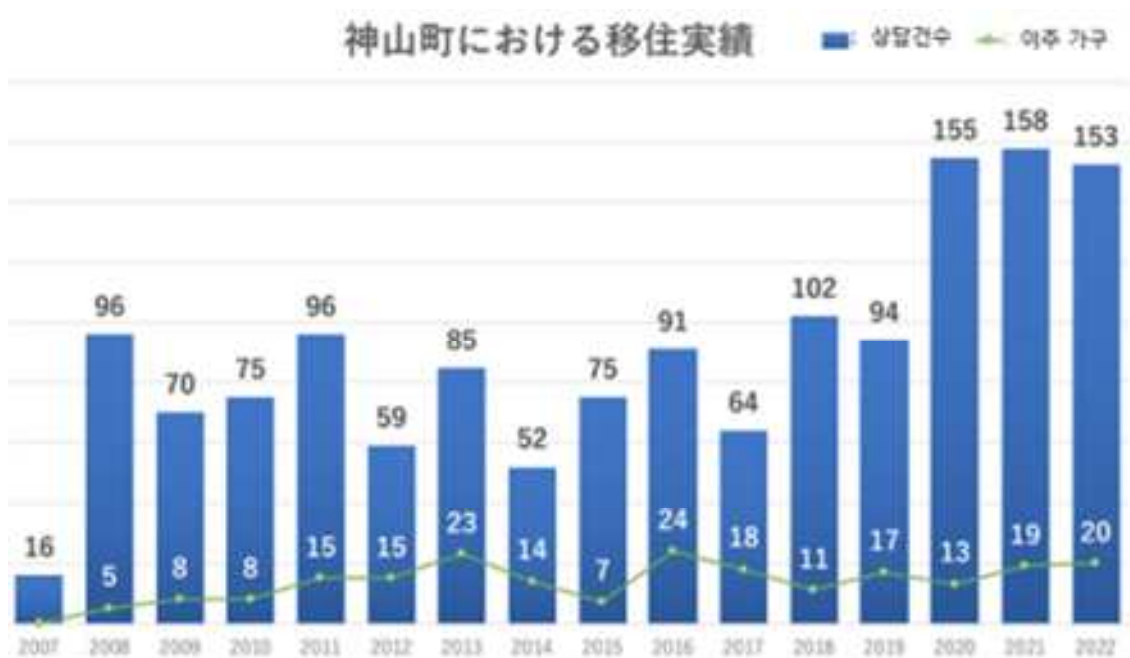
- 그린밸리는 적합한 빈집을 소개하는 등 이주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2011년에는 IT기업 직원이 아쿠이강 바위에 걸터앉아 노트북으로 일하는 모습이 일본 공영방송 NHK에 소개되며 가미야마가 일본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 이주자가 많은 시골은 많지만 소멸위기의 산골마을에 IT기업이 이주한 마을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서 가미야마는 ‘최첨단 과소화 마을’로 불리고 있다.

마을에 정착한 젊은이들이 활력있는 마을 재생

- 가미야마에 위치한 16개의 위성 사무실에는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골 생활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머무르고 있다.
- 2010년 산산의 이주 이후 디자인, 지적재산권, 미디어, 웹컨설팅, 이벤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가미야마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지사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 그린밸리는 마을로 이주한 외지인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마을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이 활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며 서로 상생하고 있다.



[가미야마정의 이주 실적 그래프 (출처: 가미야마정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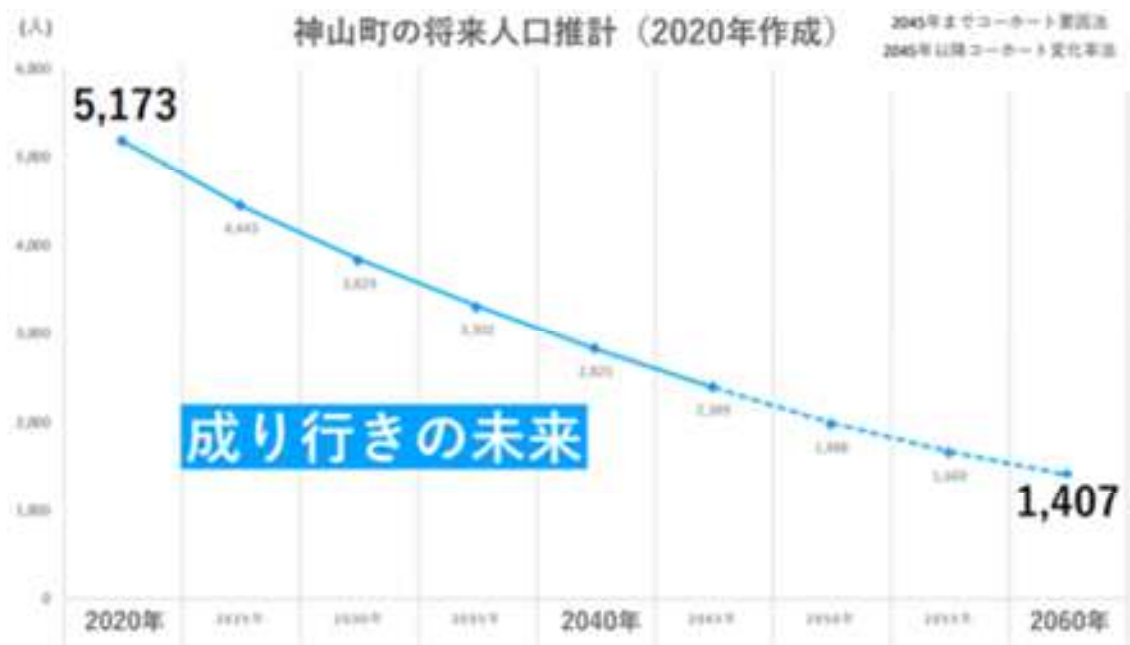


그린밸리와 가미야마연대공사가 마을살 리가 주도

- ‘그린밸리’와 함께 가미야마 마을 살리기를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주체는 가미야마 연대공사(神山つなぐ公社)이다.
-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실현되지 않는다’를 모토로 설립된 가미야마연대공사는 주민과 지자체, 정부 간 협력을 촉진해 가미야마 마을 창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행정부(지자체·현·정부)의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계획, 예산, 실시, 변경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민간 주도로 진행되는 경우 행정부와의 협력이 어렵고 공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 가미야마연대공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문과 민간의 중간 역할을 맡고 있으며 관민 협력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인구 3,000명 이하 감소 저지가 목표

[가미야마의 인구 감소 예측 그래프 (출처: 가미야마정 발표자료)]



- 가미야마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2060년도에는 1,0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구가 줄어들면 병원, 택시, 교육, 수도 등의 공공시설을 포함한 생활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고 이러한 인프라 소멸은 지역소멸로 연결된다. 이에 따라 가미야마 연대공사는 인구감소가 지역소멸로 연결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구가 3,000명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49세 이하 젊은 층을 주축으로 프로젝트팀 구성

- 가미야마연대공사가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드는 것이었다. 의사 결정권자 중심으로 개인의 의견을 제안하기 어렵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되는 기존의 회의 방법을 바꿔 실무자 중심의 회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 또한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 기업 관계자, 민간단체, 가미야마 주민들로 구성된 49세 이하 젊은 층을 주축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
- ✓ 젊은 층이 주축이 되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것의 장점은 구성원들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계획을 프로젝트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미야마의 마을 창생 프로젝트팀]



소그룹으로 나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회의

- 회의장의 모습도 2~3명을 한 그룹으로 구성해 자유롭게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다. 기존의 원탁형 회의 테이블이 아닌 열린 공간에 의자를 자유롭게 배치해 소그룹으로 아이디어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 프로젝트팀에서는 그룹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



으며, 매년 7월부터 약 3~4개월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통해 구성원 간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킹 형식의 회의는 회의가 끝난 후에도 구성원들 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교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 회의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종이에 적힌 아이디어 리스트 옆에 본인의 의견을 적는 등의 형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고,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



- 회의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는 가미야마 마을 창생 프로젝트에 실제로 반영하고 있으며 특정 아이디어에 동의하거나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낸 사람이 3명 이상이면 프로젝트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살고 싶은 마을의 6가지 요소를 고려한 공동주택

- 가미야마연대공사는 살고 싶은 마을의 요소로 △많은 인구 △사람이 살기 위한 좋은 주거 환경 △좋은 학교와 교육환경 △경제활동이 가능한 환경 △주거지역의 인프라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프라 등 6가지를 꼽았다.
- 살고 싶은 마을의 6가지 요소를 고려한 가미야마연대공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육아 세대 유입을 축으로 한 ‘공동주택’ 프로젝트이다. 가미야마연대공사는 그동안의 프로젝트를 결합해 △거주지 조성 △청소년 인구 유입 △자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 가미야마는 집값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거의 짓지 않는다. 빈집을 임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빈집 중에는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거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 젊은 층 유입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요인에는 청소년 인구가 적어서 또래끼리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점도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 ✓ 1990년에는 가미야마에 초등학교 7개와 중학교 2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초등학교 2개와 중학교 1개만 남아있다. 이러한 이유로 가미야마에는 청소년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은 학교 이후 어울릴 친구가 없어서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마지막으로 가미야마 면적의 86%를 차지하고 있지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삼림자원을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다. 과거 일본은 경제성이 높았던 나무를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는데, 해외 목재 수입 등으로 경제성이 하락하자 활용되지 않고 방치되는 삼림이 늘어나게 되었다. 가미야마에서도 숲이 지나치게 우거지고 햇빛이 잘 들지 않자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강물 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가미야마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현황 (출처: 가미야마정 발표자료)]



주만·지역자재·지역식물로 만든 가미야마의 상징 주택



- 가미야마의 목조 공동주택은 2017년부터 4년에 걸쳐 1년에 2동씩 건설되었다. 외부 인력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천천히 짓더라도 마을의 기술자들을 고용해 짓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 공동주택은 조립형 건물이 아니라 전통 건축 기법을 활용해 지었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

렸지만,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통기술을 계승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 목재는 100% 가미야마에서 공수한 나무를 사용했으며 목재 이외의 자재들도 최대한 외부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미야마에서 공수한 자재들을 활용했다. 일부는 과거 중학교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고 나온 자재들을 재활용했다. 조경을 위해 심은 식물들도 근처 산에서 채취한 씨앗과 가지 등 90종류의 지역 식물들로 인근 고등학교 학생들이 채취해 온실에서 묘목을 키워 직접 옮겨 심었다.
- 이처럼 공동주택은 주택건축 5개사, 철거공사 2개사, 기반 정비 1개사, 원자재 납품 7개사 등 가미야마 회사 16개를 포함한 건설 기술자와 지역 학생, 마을 주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식물로 만들어 건물 자체가 가미야마의 상징이 되었다.

고등학생 이하 자녀와 거주하는 50세 이하 부부 입주

- 공동주택의 임대료는 월 4만 5천 엔으로 현내 출신 34명과 가미야마 주민 20명, 외부인 16명 등 다양한 지역 출신의 주민 총 70명이 거주하고 있다. 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조건은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부부세대이며, 자격조건이 만료되면 공동주택에서 이주해야 하는데, 이는 새 주민들과도 교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회의를 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주택에서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해 주택단지 내에는 자동차가 다니지 않게 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웃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가미야마를 교육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 최근 가미야마에서 새롭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가미야마를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 가미야마 1호 입주기업인 산산을 비롯해 취지에 공감한 기업과 자산가들의 기부금으로 2023년 4월 마루고토기술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 마루고토기술전문학교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과정을 결합한 5년제 학교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등 IT 기술과 웹디자인, 건축설계 등의 디자인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전문학교이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강의실과 기숙사 등을 짓기 위해 210억 원을 목표로 기부금을 모았는데, 230억 원이 모금되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이처럼 마루고토기술전문학교에 대한 관심과 지지로 전교생이 학비와 기숙사비, 식비 등 모든 비용을 지원받고 있으며 졸업생의 40%는 기업가로 양성할 계획이다.

✓ 참고문헌: 김은송. 2023.3.17. 지방 재생의 모범, 가미야마, 단비뉴스

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5

✓ 참고문헌: 이춘재. 2022.8.8. 소멸 문턱 섰던 일 산골마을, 2030 귀촌 행렬 맞이한 비결, 한겨레,

2) 질의응답

Q 한국 지자체에서도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비슷한 사업이 있었는데 예술가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떠난 사례가 많았다. 여기는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외지인의 적응 어려움이나 주민들의 거부감은 없었는가?

◆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가미야마에도 외부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다. 하지만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는 20년간 지속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의 정착을 위한 지원 등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Q 가미야마연대공사는 민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공사의 운영비는 어느 정도고 사업비 조달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가미야마연대공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태가 아닌 용역을 수주하는 형태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공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90%는 군청에서 발주한 것이다.

Q 그렇다면 지자체의 용역 이외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가미야마 마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현장 학습을 진행하거나 지역창생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는 연수단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Q 가미야마연대공사의 연 매출 규모와 직원수는 어떻게 되는가?

◆ 약 1억엔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12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신 지역은 다양하지만 가미야마연대공사에 합류하면서 가미야마로 이주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 공간 비즈니스 기업을 통한 낙후지역 재생 : (주)나이스

<p>(주)나이스 (株式会社ナイス) 〒557-0025 大阪市西成区長橋3-6-33 nice.ne.jp +81 6 6563 1156</p>	
---	---

현장학습	일본	오사카	2023.11.23.	10:00
------	----	-----	-------------	-------

평균 수명이 짧고 범죄율이 높은 일본 최대 슬럼가

- 오사카의 니시나리(西成)지구는 인구 15만 명 중 30% 이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노약자 등 취약계층인 일본 최대의 슬럼가이다. 값싼 노동력의 공급시장이자 일자리, 건강과 교육, 주거 등에서 사회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짧고 범죄율이 가장 높은 곳이기도 하다.
- 과거 니시나리는 건설노동자나 부두노동자들이 모여 살던 곳으로 오사카의 중심지였으나 198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며 니시나리에 있던 공장과 근로자들이 대거 빠져나가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폭력조직인 야쿠자들이 이 지역으로 모이면서 성매매와 마약 등 범죄에 노출되었고 자연스레 노숙자, 일용직 노동자, 마약 중독자들이 배회하는 낙후지역이 되었다.

니시나리 지구 중심 노숙자 무상 숙박과 무상 급식 제공

- 1987년부터 1995년까지 재임한 오사카의 시장이었던 니시오 마사야는 거품경제 붕괴로 혼란한 민심을 잡기 위해 니시나리를 중심으로 한 노숙자 무상 숙박과 무상 급식을 추진했다. 이 제도는 오사카 시청이 노숙자들에게 숙박 쿠폰을 제공하고 시청과 미리 계약한 여관이 노숙자에게 받은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형태였다.
- 이 제도를 활발하게 운영하던 시기에는 시청에서 제공하는 쿠폰이 일일 수천 장 이상이었고,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체도 200개 이상 생겨났다.
- 노숙자 무상복지가 도입된 초반에는 복지 혜택을 받는 노숙자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무상 숙박과 무상 급식을 운영하는 업체들도 늘어나게 되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성공적인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각 지역에서 몰려든 노숙자로 쿠폰 지급 중단

- 그러나 이러한 오사카의 노숙자 복지 정책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의 여러 단체와 노숙자들이 자신들의 지역에도 이러한 복지를 제공해달라며 항의했고 많은 지역의 공무원과 정치인들이 관할 지역에서 무상 숙박과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 대신 무상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오사카로 갈 수 있는 무료 교통편을 제공했다.
- 이 때문에 전국의 노숙자가 오사카로 몰리게 되었는데, 특히 숙박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숙소가 몰려있던 니시나리 지구에 가장 많은 노숙자들이 모여드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 각 지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노숙자들로 인해 쿠폰 지급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에는 쿠폰 지급이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자 노숙자들은 니시나리 지구에 판잣집을 만들거나 길가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게 되었고 원래 니시나리 지구에 살던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할 정도로 치안이 나빠지며 이 지역은 점차 낙후되어 갔다.

쓰쿠리 조성위원회 발마츠족, 니시나리 구민인권선언 발표

- 오사카시는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지역의 열악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 법인, NGO, 지역활동가와 함께 부락해방운동, 마을만들기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왔다.
- 1993년에는 ‘부락해방동맹 니시나리지부’와 각 단체들이 연합해 ‘니시나리 마츠쓰쿠리 조성위원회’를 발족하고 ‘니시나리 구민인권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 ✓ 니시나리 지구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주택과 공동주택 등 지원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으나 수요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 (주)나이스도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는 기업 중 한 곳이다. 나이스는 낡은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비즈니스 기업으로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 공공사업 위탁 운영과 함께 5개 주거단지 운영

- 1997년 설립된 나이스의 사업 분야는 크게 △환경복지사업부 △지역개발사업부 △비영리 생활지원사업부 등 세 개로 나눈다. 나이스는 공원 관리 등의 지역 공공사업 위탁 운영과 함께 약국, 대중목욕탕, 마을학교, 레스토랑 운영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기업 특성을 살린 나이스의 대표 사업이 홈리스 주거지원 시설 운영이다. 니시나리 지구는 주거 선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주거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특히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주택이 부족하다.
 - ✓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층이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사회 인프라가 축소되고 이에 따라 일자리도 사라지면서 지역이 낙후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 나이스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마쓰이맨션, 브랑코트, 커뮤니티하우스 하기, 이지루코트 등 총 5개의 주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나이스의 주거시설은 단순 주거공간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점포, 사무실, 케어시설, 식당 등이 입주한 복합 주거시설로 입주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운영수익 증대를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
- 주거시설은 임대주택과 장애인주택, 치매노인주택, 점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지 부동산회사와 합작하고 있는 두 곳을 제외하고는 나이스가 직접 관리한다.


일자리 찾기 지원 프로젝트로 공원에 노숙자 고용

- 노숙자의 일자리 찾기 지원 프로젝트인 ‘엘 챌린지’도 나이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이다. 나이스는 도시공원 지정관리제 시행에 따라 조인트벤처 공원협동관리 공동체를 설립해 운영을 맡은 공원 두 곳에 노숙자를 고용했다.
- 고용된 노숙자들이 식물을 관리하며 즐거움과 애정을 느낄 수 있도록 원예복지사 양성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영리기업인 (주)나이스 안에 비영리 부문인 ‘생활 응원실’을 만들어 노숙자들에게 상담, 주거복지와 생활 지원, 목욕 서비스, 인문학 교육과정을 제공하기도 했다.
-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지역 내 경로당 어르신 또는 유치원 아동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한 ‘대안가족’ 만들기, 경제력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쓰루미 휴먼뱅크’ 등이 있다.

젊은이와 노약자들에게 주거공간 지원

- 이처럼 나이스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있는 니시나리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생활 밀착형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공가를 활용한 주거시설 조성, 중고건물의 리모델링, 셰어하우스(share-house) 사업을 통해 낮은 임대료로 젊은이와 노약자들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보호제도나 주택시책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참고문헌: 강종우. 2018.12.11. ‘뒷골목 홈리스, 공원의 수호자가 되다’. 제주의 소리 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2626
- ✓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8.11. 오사카시 지역관리형 사회적경제 사례탐방.

마.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떠드는 의자박물관’ : 이시카와현립도서관

<p>이시카와현립도서관 (石川県立図書館) 金沢市小立野2丁目43-1 (地図) library.pref.ishikawa.lg.jp 컨택: 佐野寛子(사노 히로코) +81 76 223 9588 library@pref.ishikawa.lg.jp</p>	 <p>石川県立図書館 Ishikawa Prefectural Library</p>
--	--

방문연수	일본	이시카와	2023.11.24.	10:00
------	----	------	-------------	-------

1) 연수내용

워크이션의 성지로 각광받고 있는 이시카와현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의 브리핑을 담당한 사노 히로코씨는 경영관리 담당으로 도서관의 설계와 디자인에도 직접 참여했다고 한다.
- 사노 히로코씨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완성되기까지 △돌러볼만한 곳 △알고 계세요? 이런 서비스 △추천 견학 코스 소개의 순서로 발표를 했다.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2022년 2월 완공되었으며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입소문이 나면서 5개월 사이 53만 명이 다녀갔다.
- 기획부터 완성까지 6년이 소요된 이 도서관에 들어간 총예산은 총 150억 엔으로 이시카와현의 인구가 약 130명인 점을 고려했을 때 주민 1인당 1만 엔이 넘는 돈을 도서관 건립에 지불한 셈이다. 최근 경제가 하락하고 있는 일본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한 이유는 도서관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인구감소를 늦추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 이시카와현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미술관인 '21세기 미술관', 케이크 상자를 형상화한 '우미 미라이(海みらい) 도서관'등 신형 건축물의 집결지이기도 하다.



[우미 미라이 도서관]

위케이션의 효과와 문화자원 힘 경험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문화 자산 덕분에 코로나19 여파 속에 퍼진 위케이션의 성지로 각광 받으며, 문화자원의 힘을 경험한 도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 편리성과 새로운 경험, 문화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일본의 도서관은 많다. 인구 5만 명의 소도시 다케오는 2013년 대형 서점 쓰타야를 운영하는 컬처컨비니언스클럽(CCC)에 도서관 운영을 위탁했다.



[21세기 미술관]



-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도서관 운영을 민간 기업에 맡긴 첫 사례였던 다케오도서관은 도서관 겸 서점으로 재단장 후 2011년 25만 명이던 연간 방문객이 2013년 92만 명으로 3.6배 증가했다. 숙박 시설 가동률은 2배, 음식점 매출은 1.2배 증가하며 2015년 기준, 지난 2년간 총 36억 엔의 경제 파급효과와 홍보 효과를 올렸다.
- 이처럼 일본 곳곳에 자리 잡은 도서관들은 문화자원의 힘 또한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는 대안임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역소멸을 겪고 있던 일본은 문화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방 도시의 치명적인 단점을 도서관을 통해 해소하려고 하고 있다.
- 과거 재미없고 조용한 곳이라 여겨지던 도서관의 기능과 디자인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하며 전통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넘어선 편리성과 새로운 경험, 문화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화자원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막는 대안

- 2022년 2월 완공된 신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구 도서관을 재건축해 만들어진 곳이다. 구 도서관을 현재의 도서관으로 재건축하게 된 계기는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함 때문이었다.
- 최초의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1921년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위치한 에도시대의 정원이자 일본의 3대 정원으로 꼽히는 겐로쿠엔 내부에 개관했으며, 이후 1966년 지금의 자리인 혼다마치로 이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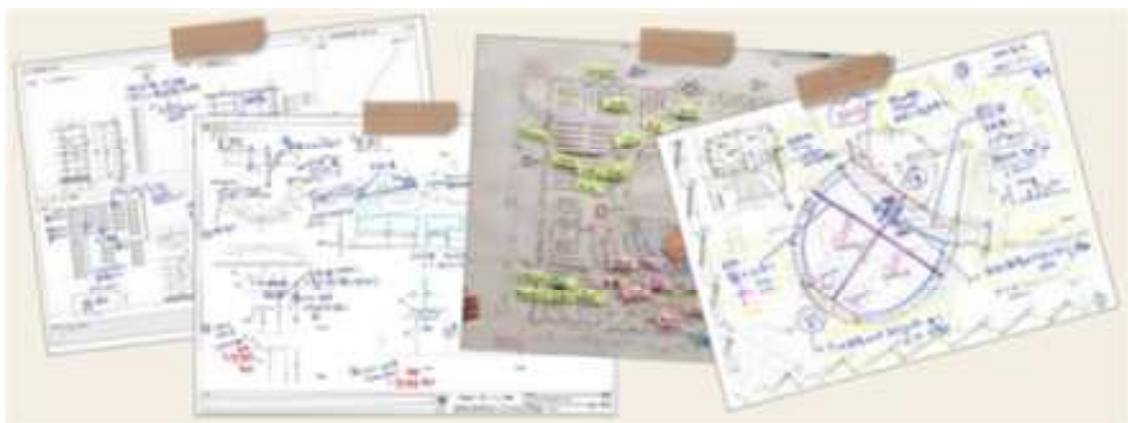
- 재건축을 논의하던 당시 구 도서관 건물은 이미 건축한 지 50년 이상 되어 설비가 노후화 되어 있었으며, 설계의 문제로 내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 또한 열람 장소가 협소해 소장 중인 책의 약 10%만 눈에 보이는 곳에 진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많은 책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진열 공간 부족으로 보유한 자료들을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서고도 스무 개로 분산되어 있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을 반출하기 어려웠고, 주차도 32대만 가능한 등 공공도서관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식과 문화의 상징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재건축 결정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의 재건축이 결정되었고, △지적인 활기와 북적거림이 넘치는 활동적인 도서관 △현민의 파트너로 같이 성장하는 도서관 △이시카와의 풍부한 문화·역사를 활용해 미래와의 연결고리가 되는 도서관 △지식과 문화의 상징이라는 컨셉으로 기본 구상을 책정했다.
- ✓ 일본 국립 도서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인구 110만 명 가운데 구 도서관을 방문한 인구는 25만 명으로 주민의 60%는 연간 한 번도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방문객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서관 재건축을 결정한 것이다.
- 이시카와현립도서관 도서관 재건축 프로젝트팀은 최대한 많은 주민이 도서관에 방문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고, 도서관에 흥미가 없었던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컨셉과 디자인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센다 미쓰루가 이끄는 환경 디자인 연구소에서 설계

[신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의 컨셉 디자인 스케치]



- 도서관 건축의 컨셉과 설계는 센다 미쓰루가 이끄는 환경 디자인 연구소가 맡았고 프로젝트팀과 지면을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하며 컨셉 결정을 위한 격론을 펼쳤다.

- 도서관 내부 인테리어와 디자인은 디자인계의 거장인 가와카미 디자인 룸의 가와카미 노토미가 맡아 이용자의 TPO(Time, Place, Occasion)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500개의 다양한 열람석을 설치했다.
- 도서관의 내 안내표지판은 도쿄 올림픽의 픽토그램을 디자인한 히로무라디자인 사무소의 히로무라 마사아카시가 담당했는데, 동서남북에 따라 색을 지정해 원형 공간 내에서도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구분했다.

방문객 확대를 위해 12개 테마별 도서 진열 방식 채택

- 도서관에 관심이 없던 주민들을 방문하게 하기 위해 책의 배치와 진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이를 키우다 △일을 생각하다 △생활을 넓히다 △문학을 접하다 △자신을 표현하다 △호기심을 품다 △세상으로 뛰어오르다 등 12개의 테마로 책을 배치해 방문객들이 새로운 책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 진열을 위한 12개의 테마]



- 다만 기존의 도서관 서가 배치에 익숙한 도서관 이용자를 배려해 원형 서가는 테마에 따라 책을 진열했고, 바깥쪽의 서재 부분은 기존 도서관 분류 순서대로 진열해 편하게 책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 새로운 책과의 만남과 열람의 용이성을 모두 고려해 도서관 초심자와 주 이용자 모두가 도서관을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컨셉과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 2019년 10월 신 도서관의 건축이 시작되었고, 약 3년 간의 공사 끝에 2022년 7월 신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개관했다.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현립도서관으로서 많은 주민이 방문해야 공공시설로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연결되는 큰 도로를 고려해 접근성이 좋도록 설계했다.
- ✓ 도서관은 가장 가까운 역에서 약 5km 정도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서관을 재건축하면서 큰 도로와 연결하는 도로공사를 함께 진행했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의 위치와 연결된 인근 도로]



지식을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는 떠드는 도서관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이 일본 내외에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건축물의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사용자 중심의 창조적인 접근법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 ✓ 6년의 건설 기간동안 지속된 이시카와 현립도서관의 재건축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했다.
- 단순히 책을 읽는 장소를 넘어 사람들이 모여 지식을 교류하고 생각을 나누는 공간으로 변신하는데 주력했고,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대화를 허용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에서는 반드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사일런트 룸'을 제외하고는 관내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휴대전화도 받을 수 있다. 외부에서 사온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는 것도 가능하다.
 - ✓ 이런 성과를 거둔 바탕에는 이시카와현도서관 정책 담당자가 직접 북유럽 국가를 둘러보고 도서관에 게임기와 커피머신을 두는 파격적인 현지 도서관을 벤치마킹한 것도 요인이 되었다.
- 적당한 수다를 허용하면서 도서관의 문턱이 낮아지기도 했다. 책을 눈으로 읽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책을 쉽게 접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이 된 것이다.
 - ✓ 이러한 '떠드는 도서관'은 최근 개관하는 일본 각자의 도서관으로 조금씩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대형 홀을 원형 극장처럼 둘러싸고 있는 '북 콜로세움'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에 들어서면 4층까지 뿔 뚫린 높이 15m의 대형 홀을 서가가 원형 극장처럼 둘러싸고 있는 '북(Book) 콜로세움'에 먼저 압도당한다. 계단으로 이어진 둥근 서가엔 약 7만 권의 책이 진열되어 있으며, 벽 쪽 서가까지 합치면 총 30만 권의 책이 질서 있게 진열되어 있다.



- ✓ 도서관의 설계를 맡은 건축가 센다 미쓰루(仙田満)는 “기존의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갖고 있던 룰을 깨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 새로운 룰은 구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종류의 의자와 소파로 채운 도서관의 인테리어와 '사일런트 룰'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의 정책에서도 나타난다.

500석의 소파와 의자를 100가지 디자인으로 설계한 '의자 박물관'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도서관에 오래 머무르게 하려면 사람들의 몸이 직접 닿는 가구가 중요하다'는 철학에 따라 도서관에 있는 총 500석을 100종류의 다양한 의자와 소파로 설계, 의자 박물관인 듯한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 연 면적이 2만2천㎡로 일본 현립도서관 중 최대규모를 자랑하는 이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진 '체류형 도서관'으로 최근 건축되는 일본 공공도서관의 트렌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다.
- ✓ 참고문헌: 이영희. 2023.1.2. 무려 53만명이 찾은 '日콜로세움'...1445억 들인 도서관의 비밀. 중앙일보. www.joongang.co.kr/article/25130506#home
- ✓ 참고문헌: 정영효. 2023.1.10. [특파원 칼럼] 소멸 위기 지방 살리는 日 도서관. 한국경제. www.hankyung.com/article/2023010914601

2) 질의응답

Q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인구증가나 세입증가 등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문화환경 조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시카와현립도서관 재건축에 직접 참여했던 담당자로서 인구소멸에 문화가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가?

◆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효과를 즉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도서관 재건축으로 인해 이시카와현 또는 가나자와시의 인구가 갑자기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신 도서관 개관 1년 만에 방문객이 4.5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문화시설이 지역활성화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Q 기획단계에서 기본구상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참여했고 의사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가?

◆ 도서관 건립은 이시카와현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현립도서관이기 때문에 현민의 파트너로 성장하는 도서관이지만 프로젝트에 현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명확한 컨셉과 디자인, 설계 등 관련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특색 있는 도서관으로 건립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도서관 건립에 약 150억 엔이 투자되었다고 들었다. 상당히 큰 금액인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했는가?

◆ 현민들의 세금과 현비로 조달했다. 일본에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도서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없다. 각 지자체의 자체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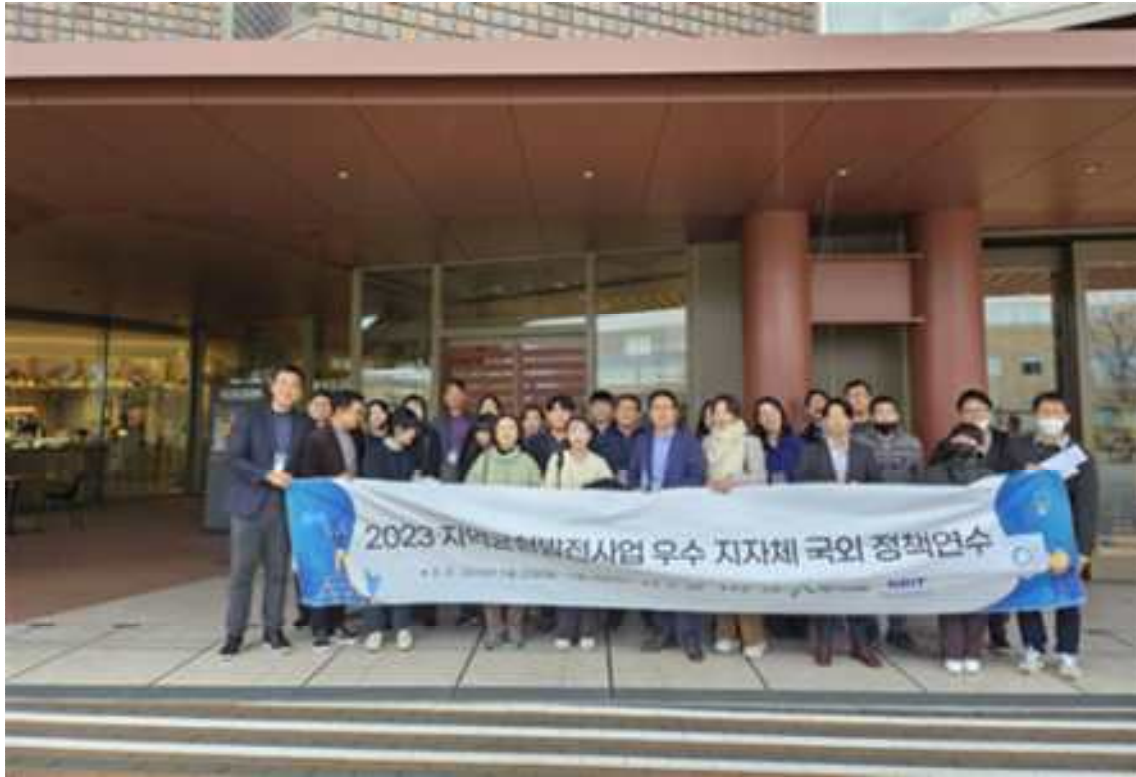
Q 운영은 민간에서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가?

◆ 일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영이고 1년 약 10억 엔의 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Q 신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 프로젝트에 참여한 담당자로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다. 신 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될 직원들은 기존 도서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지만 도서관은 시설과 시스템은 이전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업무 방식을 바꿔야 했고 이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했다. 아무리 좋은 도서관이더라도 운영이 잘 되지 않으면 도서관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설계 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 디자인 담당자와도 긴밀하게 소통했다.



바. 대중교통과 생활기능 집적을 통한 콤팩트마을 만들기 : 도야마시청

<p>도야마시청 (富山市役所)</p> <p>〒930-8510 富山県富山市新桜町7番38号 www.city.toyama.lg.jp 컨택: 高瀬 智志(사토시 다카세) +81 76 443 2179 toshikeikaku@city.toyama.lg.jp</p>	 <p>立山 あおく特等席。富山市</p>
--	---

방문 연수	일본	도야마	2023.11.24.	16:00
-------	----	-----	-------------	-------

1) 연수내용

높은 행복지수를 보이는 ‘일본에서 가장 멋진 마을’

- 도야마 시청에 도착한 연수단을 도시계획과 기획계의 사토시 다카세씨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다카세씨는 연수단을 6층에 위치한 회의장으로 안내했다.
- 다카세씨는 ‘대중교통을 축으로 한 콤팩트한 도시 만들기, 콤팩트 시티 전략에 의한 도야마형 도시경영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도야마시는 일본 본섬인 혼슈에 위치한 1,200km² 면적의 해안 도시로 도야마현의 중앙에 있으며, 현 전체 인구의 약 4%인 413,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 도야마시는 법정 인구 30만 이상이면 자격을 얻는 중핵 시 중 하나로, 가구당 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초·중학교 전국 학력평가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등 도쿄와 오사카를 제치고 가장 살기 좋은 곳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도시이다.
- 일본의 수도인 도쿄에서 400k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높은 행복지수로 후쿠이현의 사바에시와 더불어 일본에서 ‘가장 멋진 마을’로 불리기도 한다.
-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방에서 지역 활력을 유지하려면 의료·복지·상업 등의 생활기



능을 집적시켜 고령자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지역 대중교통과 연계한 압축도시 만들기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자체가 압축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도야마시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전략이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콤팩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 과거 도야마시는 △인구감소와 초고령사회 △탄소 배출량의 증대 △높은 자동차 의존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쇠퇴 △중심 시가지의 역할 부족 △높은 도시 관리 행정비용 △평균수명과 건강 수명의 괴리 등의 과제를 가지고 있었다.

[연령대별 인구 예측 그래프 (출처: 도야마시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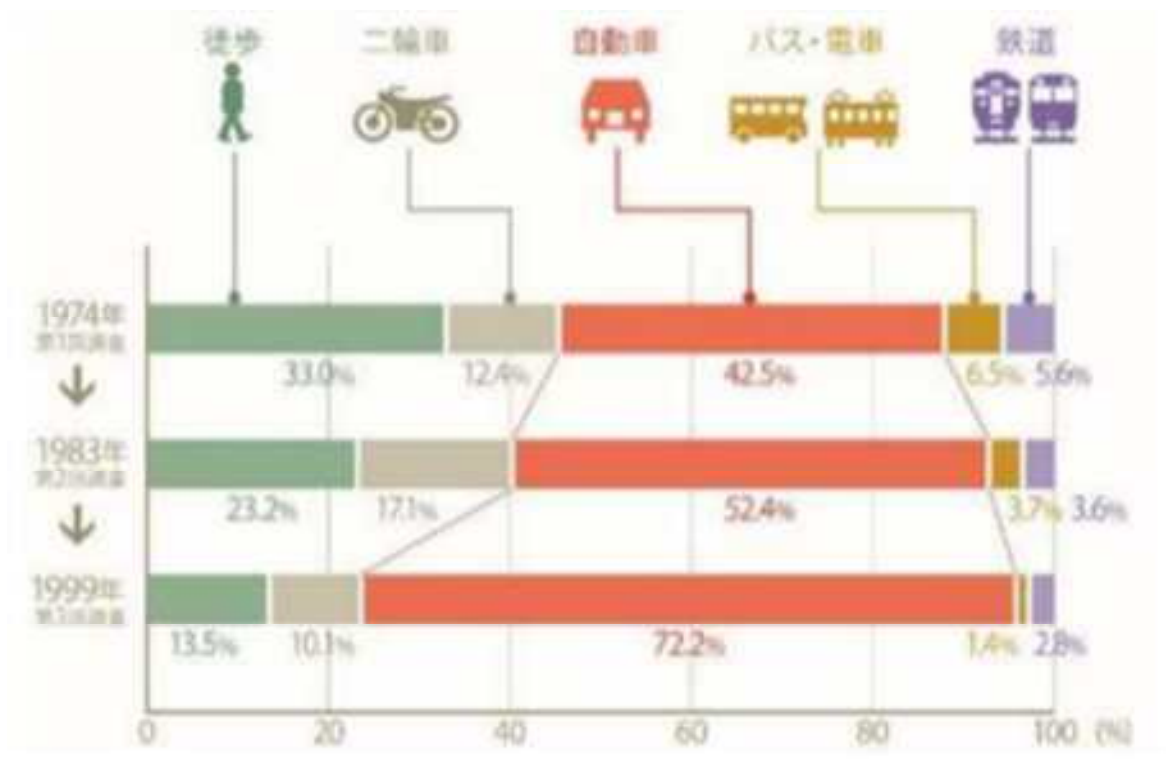


- 도야마시의 총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045년에는 2010년 대비 약 23%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특히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5년부터는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될 전망이다.
-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지며 의료비와 간병비 등 사회보장비가 증가했고, 도야마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집중형의 콤팩트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키로 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한 거주지 조성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목표로 ‘도야마시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도심 재정비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 형성

- 2002년 모리 마사시(森雅志)시장 당선과 더불어 시작된 콤팩트시티 전략은 시가지 인구 밀도가 2005년 1ha당 40.3명으로, 47개 광역단체 청사 소재지 가운데 가장 낮고, 도심의 땅값도 하락하는 등 심각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 배경이었다.
- 도야마시는 가구당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가구가 매우 혼할 정도로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 대수가 높아, 교통수단으로 자동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서 대중교통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하게 되었다.
- ✓ 도야마시의 가구 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670대로 전국 1위를 차지한 후쿠야마현의 1.727대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수단별 교통 분담률 (출처: 도야마 타카오카 광역 도시권 제1~3 조사)]



- 대중교통 이용 감소는 대중교통의 쇠퇴와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에게 전가되었다. 전체 시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 소외계층의 생활환경이 제한받게 되고 이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된 것이다.
- ✓ 도야마시의 교통 소외계층의 76%는 여성이며, 72%는 60대 이상의 고령자이다.
- 도야마시의 콤팩트시티 정책은 무작정 흩어진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중심이 되는 도심을 재정비해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 철도와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그 이동 동선에 거주, 상업, 업무, 문화 등 도시의 기능을 집적시킴으로써 대중교통을 축으로 한 거점 집중형 도시를 계획한 것이다. 그 다음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배치해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선택했다.

❏ ‘경단 꼬치’ 구조로 대중교통 주변 시가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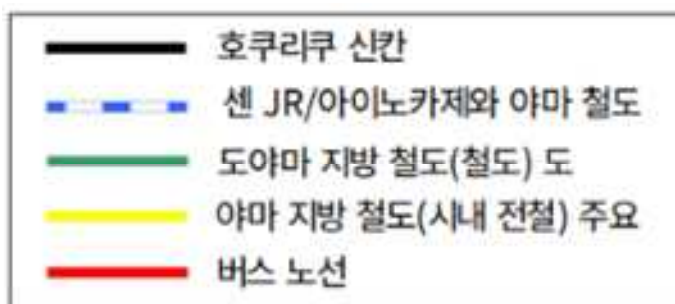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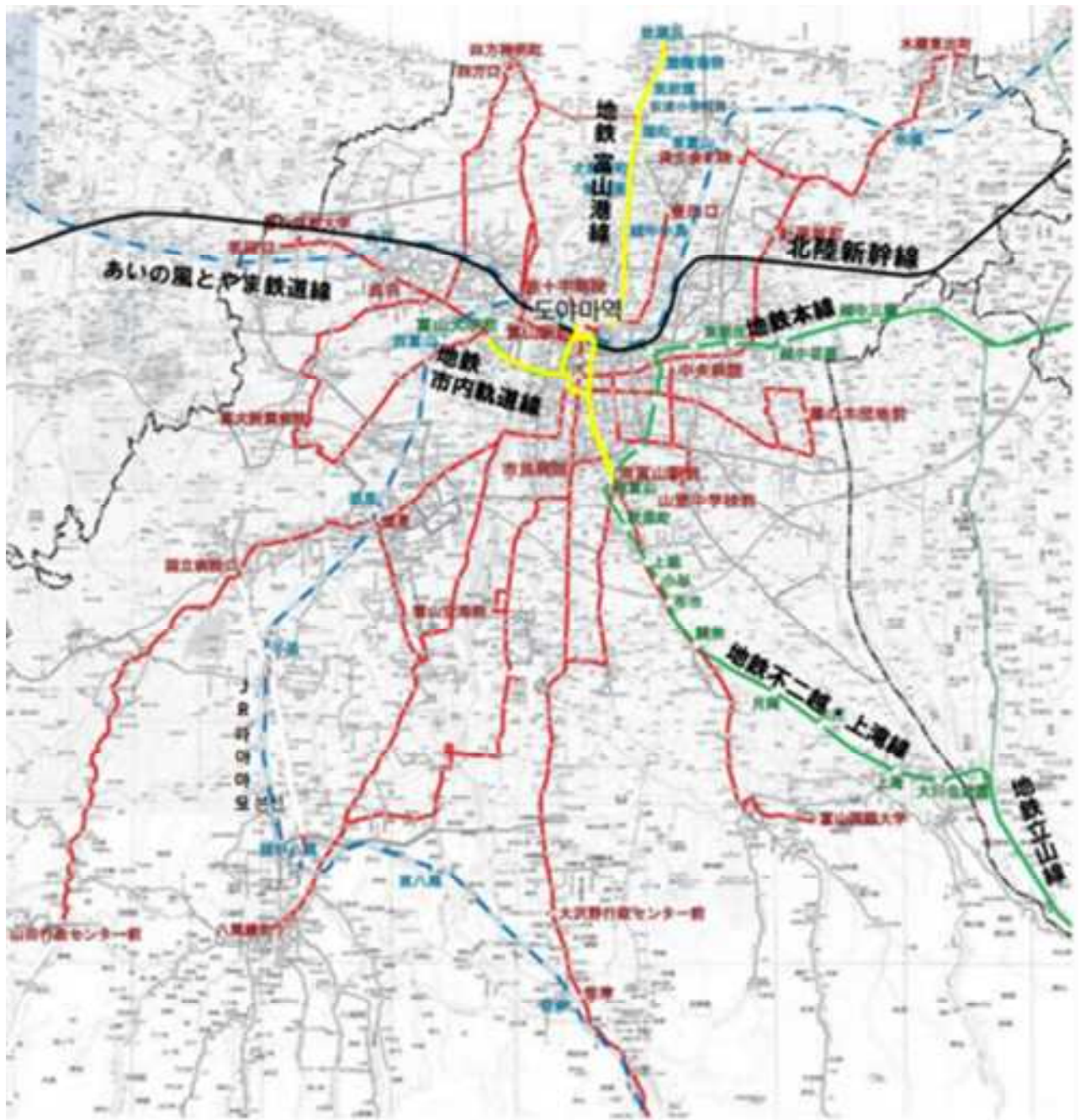
- 기본적으로 도야마의 콤팩트시티는 대중교통이 꼬치이고 역과 버스정류장의 도보권을 꼬치에 연결된 경단으로 볼 수 있는 ‘경단 꼬치’ 구조이다. 이 구조는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그 주변에 거주를 추진하면서 중심 시가지를 활성화 하는 3개의 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도야마시는 도야마 역을 중심으로 7개의 전철 노선과 호쿠리쿠 신칸센, 아이노카제, 야마 철도선 등을 설치하고 노선버스를 포함한 방사형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이런 전략을 통해 자동차에 의존해 쇠퇴하고 있던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재 정비하고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한 라이프스타일과 도보도시의 구조를 만들었다.



❏ 노면전차 네트워크 구축이 프로젝트의 핵심

- 도야마시는 철도 연선 45.8명/ha, 버스노선 연선 34.4/ha였던 연선지의 인구밀도를 철도 연선 50명/ha, 버스노선 연선 40명/ha로 2005년 기준 약 28%에서 2025년 40%대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차세대 노면전차(Light Rail Transit) 네트워크의 구축이었다. 1913년 이래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던 도야마역과 남쪽 지역의 6.4km를 잇는 노면전차를 도야마역과 북쪽 도야마항을 잇는 LRT노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 도야마시는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던 JR 도야마항선에 공설 민영 운영 방식과 함께 일본 최초로 본격적인 LRT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신칸센과 JR 노선으로 분단된 남북 간 노면전차를 연결해 도야마 역사를 통한 남북 접속을 이뤄내기도 했다.
- 중심 시가지 활성화와 도심지구로의 유입을 위해 시내 전차 일부를 상하 분리방식으로 변경했으며, 이와 함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도로의 정비도 진행했다.
- ✓ 일본은 철도가 설치된 토지는 모두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철도를 민영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도 토지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민영 소유의 철도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이것이 상하 분리방식이다.

[도아마 역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네트워크]



구 JR도야마항선에 비해 운행 서비스가 대폭 향상된 LRT

- 새롭게 도입된 LRT는 구 JR도야마항선에 비해 운행 서비스가 대폭 향상되었다. 기존 30분~60분이던 배차 간격은 15분으로 축소되었으며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으로 배차 간격을 더욱 줄이고 운행 빈도를 높였다.
- 또한 열차를 저상화해 노약자와 장애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 내부와 역사에 직원을 배치해 교통약자에게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 도야마시는 기존의 JR 노선을 LRT 노선으로 전면 개조하는 것과 더불어 역 주변에 광장, 공원,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열차 시간표, 표지판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 특히 도야마 교통의 중심인 도야마역에는 공용 자전거 대여소, 택시 승차장, 버스 정류장을 모두 설치해 타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LRT 노선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평일 4,798명으로 약 2.1배, 주말 3,482명으로 약 3.3배 증가했으며, 교통약자인 고령자의 이용률도 2배 이상 증가했다.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와 지역거점 정비에 주력

- 도야마의 콤팩트시티는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고, △시민들이 시내와 교외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거점 정비를 통해 시 전역을 콤팩트시티로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 ✓ 거주지 형성은 도심지구인 마치나카와 대중교통 노선을 중심으로 한 주거축진지역으로 나누어 추진되었다.
- 도야마시는 중심시가지의 거주 축진을 위해 양질의 주택이나 택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주택을 신축·매매·임대해 거주하는 시민에 보조금을 지급했다.
- 마치나카 도심지구 기준 우량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는 가구당 최대 120만엔, 이곳으로 이주하는 시민에게는 가구당 최대 50만 엔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도심지구로 4,855가구, 주거축진지역으로 3,178가구가 이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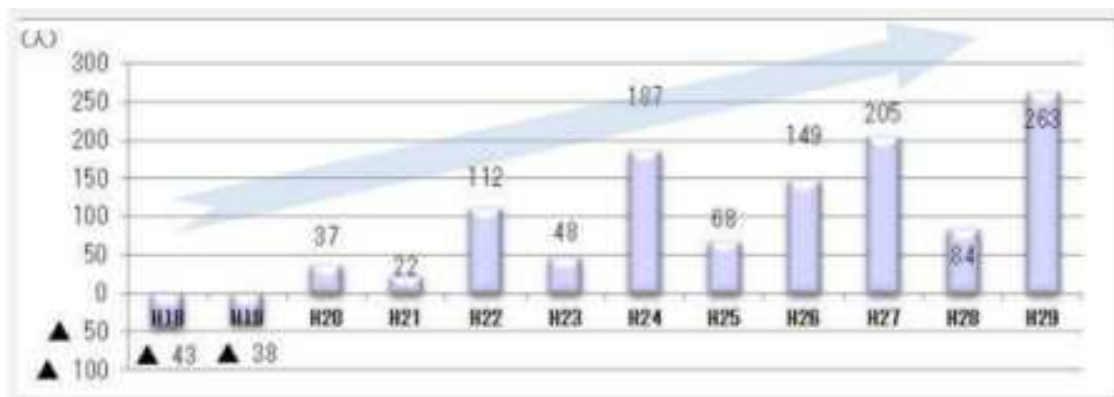


- ✓ 연선지구 거주 주민 비율은 2005년 28%, 2020년에는 39.7%이며, 이를 2025년까지 42%로 높이는 것이 도야마시의 목표라고 한다.

30년간 계속 감소하던 중심부 인구가 증가 및 세수 확대 효과

- 시민들의 이주로 전입률이 오르면서 30년간 계속 감소하던 중심부 인구가 증가하고 세수도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중심시가지의 활성화는 세금의 환류라는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도야마시 세수의 46.7%를 차지하는 도시계획세와 재산세는 대부분이 도야마시 면적의 0.4%를 차지하는 중심시가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 ✓ 중심시가지에 집중해 이곳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시 운영에 활용하고 콤팩트시티 활성화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 또한 1993년 이후 하락세를 보여온 지가 또한 2014년을 기점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16년 들어서는 전년 대비 0.4%, 상업지는 1.0% 가격이 상승했다.

[중심 시가지(도심지구)의 전입-전출 추이]



- 도심지구의 전입 인구는 2008년 이래 전입 초과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연선지도 2012년 전입 초과로 돌아선 뒤 꾸준히 전입 초과를 유지하고 있다.

건강·의료·복지 시설 확충과 고령자 우대 정책

- 도야마시는 콤팩트시티의 성공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의료·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교통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한 대중교통 고령자 할인 등의 지원정책도 내놓고 있다.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7개였던 중심시가지의 초등학교를 2개로 통폐합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학교시설 일부를 상점, 의료시설, 온천으로 개발하기도 했다.
- 과거 호시이초초등학교 부지에는 일본 최초로 온천수를 활용한 웰빙시설인 카도카와 개호 예방센터를 설립했다. 이 시설은 시민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지정 관리자가 수중운동 요법을 중심으로 한 운동 프로그램과 온열요법 등을 제공하고 있다.

- 지역 포괄 케어 시설인 마치나가 종합케어센터를 운영하며 보호자 대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서 진찰을 받게 해주거나 산모들의 심신케어를 지원하는 산후조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 교통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100엔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출 정기권 사업 또한 콤팩트시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도야마시의 정책이다.
- ✓ 참고문헌: 오영환. 2021.8.20. ‘늙어가던 도야마시, 도시철도망 바꾸니 확 살아났다’. 중앙일보 www.joongang.co.kr/article/24131957#home
- ✓ 참고문헌: 김동근.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국토연구원 해외동향. 2018.8.

2) 질의응답

Q 중심시가지 기능 확대에 집중하면서 인구 밀도가 높아졌는데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 도야마시의 인구 자체가 대도시만큼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혼잡도가 높을 때는 출퇴근 시간 정도이다. 이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의 배차 간격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기 대중교통 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는가? 만약 적자가 발생하면 적자를 보존하는 방안이 있는가?

◆ 대중교통 일부는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철도에 비해 이용자수가 적은 노선버스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다.

Q 콤팩트시티 정책을 통해 전입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전입 인구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도시 중심부로 전입하는 인구가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지역 인프라 때문에 이주하고 있다고 생각하다.

Q 지가가 상승하면 보조금도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가?

◆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도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콤팩트시티 프로젝트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조금이 많이 상승하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민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Q 대중교통의 3축 체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버스, LRT, 전차의 환승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 일본에서는 대부분 IC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IC카드를 이용하면 이용요금을 일부 할인해주고 있지만, 한국처럼 무료로 환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환승 시스템은 우리도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Q 콤팩트시티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극복방안은 무엇인가?

◆ 정책 추진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2007년부터 콤팩트시티 정책을 추진했던 모리 마사시 전 시장이 120곳을 돌면서 도야마시 콤팩트시티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콤팩트시티 추진 시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연선지구의 주민들은 정책 추진에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세금이 특정 지역에만 사용되는 것에 불만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콤팩트시티의 구성과 설계는 사전에 미리 계획되었기 때문에 마사시 전 시장이 직접 시내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통해 결국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Q 중심시가지로 전입 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인가? 추가로 물가상승을 고려해 지원금을 높일 계획이 있는가?

◆ 지원금은 앞으로 물가상승이나 지가 상승 등을 고려해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주 지원금 뿐만 아니라 도야마시로의 전입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도야마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데 이러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지역균형발전사업
우수 지자체 국외 정책연수
결과보고서

3. 정책제언

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

1) 기업참여형 지역 재생 거버넌스 구축

연수내용

- 민간기업인 파소나그룹은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쇠퇴와 도시쇠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전역에서 △고용 창출 △시설재생 △관광지 창출 △재해지 지원 등 추진
- 파소나그룹은 본사 이전을 통한 직접적인 인구 유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운영 등 인재파견을 통한 지역 재생에 주력
- 아와지시마로 본사 기능과 함께 1,200명의 직원을 이전시킴으로써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업무방법의 변화, 일과 생활의 조화 등 체질 개선 도모
- 민간이 정부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의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을 통한 지역재생의 모범사례

추진배경

-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지방에서는 생산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어 인구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지속
- 지자체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기업은 수익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자체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 협력 체계 구축

정책제언

- 지역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 발굴
 - ✓ 지자체에서 육성 중인 사회적기업의 지역재생기업 전환
 - ✓ 기업 ESG 및 CSR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재생사업 공모
- 인재파견 민간회사 유치
 - ✓ 전국 지자체 및 현지 영농법인과 협약 체결
 - ✓ 인재 파견 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파견 업체에서 각종 인사관리를 받는 청년 교육
 - ✓ 농업과 정착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파견
 - ✓ 농촌지역 연관 산업의 고용 기회 확대를 통한 지방인구감소 억제

2) 지방공기업을 활용한 전문성 확보

연수내용

- 가미야마정의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젝트와 ‘가미야마연대공사’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낸 우수사례에 해당
-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5년 기간의 정부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비영리법인인 그린밸리에 의해 프로그램이 이어져 아직 까지도 성공적으로 유지

추진배경

- 공공 주도로 진행되는 프로젝트는 계획, 예산, 실시, 변경 등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민간 주도로만 진행되면 행정부와의 협력이 어렵고 공익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 존재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부문과 민간의 중간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 공기업을 통해 민관 협력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반 구축 필요

정책제언

- 공기업 설립과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체계 구축
 - ✓ 민간 부문의 창의적이고 유연한 아이디어와 추진력 확보를 위한 공기업 설립
 - ✓ 공무원 인사에 의해 사업이 단절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전문인력 채용
 - ✓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성과 향상 추진
 - ✓ 필요시 융통성 있게 전문기관에 아웃소싱을 주는 형태로 지역시설 운영
- 젊은이의 귀농으로 연결되는 홍보활동 강화
 - ✓ 공기업이 중고등학교와 협력해서 농업이라는 직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
 - ✓ 학교 벽면을 이용한 벽면 농업, 마당을 활용한 학교 정원 등 특색사업 개발
 - ✓ 공기업 주도로 도시 축제와 결합한 농업정원 조성 이벤트 개최

3) 유휴시설 전수 조사 및 공간재생 공모전

연수내용

- 파소나그룹의 지방창생 사업은 폐교, 농가, 토지를 구입해 다양한 편의시설과 리조트 등으로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
-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유휴공간과 시설을 재생하여 지역 활성화와 기업이익 창출로 민과 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는 고무적인 사례

추진배경

- 지방에는 각종 정부사업이나 민간사업 이후에 인구 감소로 버려진 공간이나 비어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중복투자 없이 기존의 이런 시설을 지역재생의 자원으로 활용

정책제언

- 지방자치단체 관리 유휴시설 전수 조사
 - ✓ 정부 사업 후 관리되지 않고 버려진 시설 조사
 - ✓ 빈집, 폐공장, 휴경지 등 활용가능한 시설과 부지에 대한 DB구축
- 유휴공간 DB공개를 통한 지역재생 공모전 개최
 - ✓ 정부·광역자치단체 연계 지원사업비 확보
 - ✓ 인구소멸로 버려진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 공모전 개최
 - ✓ 민간기업의 초기 시설투자 단계의 보조금 지원
- 폐교 부지 활용 복합문화공간 재생
 - ✓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협약에 의한 수익창출사업 공모
 - ✓ 게스트하우스, 식당, 문화공간, 기념품점 등 유치
 - ✓ 규제를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혜택 제공
- 빈 땅 활용 마을·개인단위 무료 캠핑장 설치
 - ✓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개수대, 배수시설
 - ✓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 수도, 안전시설 설치
 - ✓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방충시설 정비 설치
 - ✓ 빈집, 창고, 폐교, 앞마당 등 다양한 캠핑장 제공

4) 공간비즈니스 기업에 의한 유희공간 활용

연수내용

-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과 IT기업의 성공적인 가미야마 정착에는 지역 주민과 지역 단체들과의 사회 연결망 구축을 지원해 주는 '그린 벨리'가 중요한 역할
- 그린벨리는 적합한 빈집을 소개하는 등 이주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마을에 정착한 젊은이들은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며 마을이 활기를 유지하는데 기여

추진배경

-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가 다양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투자의 효율성과 재원의 부족에 부딪혀 큰 성과를 많이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농촌지역의 빈집, 폐공장 등 빈 공간을 활용해서 수요자와 연결시켜주는 공간 비즈니스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민간 기업 차원에서 지역 유희자원의 활성화 사업 추진 독려 필요

정책제언

- 공간비즈니스 사업 추진 민간기업 유치
 - ✓ 일본의 파소나 그룹처럼 농촌의 빈 공간과 귀농귀촌 직업교육을 연계하는 사업 추진
 - ✓ 식당과 판매점 등 시범시설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하면서 교사가 실습생 교육
 - ✓ 농촌의 유희공간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 문화예술인의 집, 테마파크 등 운영
 - ✓ 인력교육과 공간개발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역재생 선순환 구조 확립
- 빈집 활용을 위한 공유별장 스타트업 유치
 - ✓ 공유별장 스타트업과MOU 체결
 - ✓ 별장 하나를 여럿이 공유하는 '스테이빌리티' 보급
 - ✓ 별장을 공유하면서 수익도 발생하는 사업모델 개발
 - ✓ 12분의1의 비용으로 별장을 장만하는 스타트업
- 공유별장을 활용한 한달살기 프로그램 운영
 - ✓ 의뢰-디자인-신청-인원 모집-출자금 출연
 - ✓ 별장 소유 희망자를 모아 지분등기 형태로 소유권 판매
 - ✓ 같은 별장의 소유자들은 전용 앱에서 시간 조정 예약
 - ✓ 별장 소유자들이 이용하지 않는 날은 일반 소비자 숙박

5)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연수내용

- 1990년 293만 명이던 일본의 농업 종사자는 2001년 236만 명까지 감소했고, 농산물 수입 자유화라는 상황이 더해지면서 청년 승계농이 급격히 감소하는 중
- 파소나그룹은 기간산업인 농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관광·식품·가공·유통 산업 등 연관 산업의 고용 기회를 늘려 지방으로 청년을 보내는 인재파견 사업 추진
- 가미야마는 10년을 내다보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해 공무원과 민간 기업 관계자, 민간 단체, 가미야마 주민들로 구성된 49세 이하 젊은 층을 주축 프로젝트팀 구성

추진배경

- 청년을 포함한 많은 귀농귀촌자가 농촌으로 오지만, 지역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농업경영에도 실패해 2,3년 안에 다시 도시로 떠나는 역귀농 비율도 증가
- 귀농 전 충분한 교육과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커뮤니티에 포함되어 즐겁게 생활하고 새로운 농업기술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체계 구축

정책제언

- **청년층의 수요를 고려한 농촌 정착 지원**
 - ✓ 귀농귀촌지원센터 주도로 귀농귀촌자, 지역농업단체, 공무원 참여 추진체계 마련
 - ✓ 취농 희망자를 고용하고 농업기술과 농업경영을 교육하는 ‘교육농장’ 운영
 - ✓ 농업과 취미·건강·예술 활동을 동시에 지원하는 ‘귀농귀촌 반농반예 지원사업’ 추진
 - ✓ 농촌의 특성과 청년층의 수요를 조합한 귀농귀촌 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 ✓ 공모전에 입상한 업체를 위탁기관으로 선정
 - ✓ 위탁기관에 의한 귀농귀촌 지원 프로그램 추진
- **청년 중심의 마을활력프로젝트팀 운영**
 - ✓ 이주 청년과 원주민, 귀농귀촌인이 함께 하는 마을활력TF팀 구성
 - ✓ 농촌 재생을 위한 10년 기간의 마을활력 중장기개발 계획 수립
 - ✓ 지역 활력을 위한 분야별 정책과제 개발
 - ✓ 단기 핵심과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 운영 및 사업 개발

6) 귀농귀촌 교육을 위한 도심 스마트팜 운영

연수내용

- 파소나그룹은 2005년에 도쿄 본사 건물 지하에 세계 최초의 지하 농장인 Pasona O2를 만들어 도시 청년들에게 농업의 매력을 홍보하고 귀농귀촌 희망 청년에 대한 교육 추진
- 독립 취농 또는 농업 연관 산업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참가자 45명을 모집해 농업기술을 교육했고, 농업 체험을 위한 투어 참가자 25,000명 이상이 아와지시마 방문
- 2008년에는 효고현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농지의 사용을 허가받아 아와지시마에서 농업 벤처 지원 프로젝트인 ‘파소나 챌린지 팜(Pasona Challenge Farm)’ 시작

추진배경

- 귀농을 해도 농업기술 교육 부족과 영농 경험 부족으로 농사와 정착에 실패해 역귀농을 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
- 귀농인들이 귀농 전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충분한 농업기술교육을 받고 최근 선호하는 수직농장을 비롯한 스마트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정책제언

- 귀농인을 위한 도시 교육농장 운영
 - ✓ 귀농귀촌 지원센터 연계 도심 귀농 귀촌 교육농장 조성
 - ✓ 귀농 희망자 및 역귀농인 대상 작물별 스마트팜 기술교육 제공
 - ✓ 인근 휴경지를 활용한 노지 작물 재배 시험 병행
 - ✓ 농작물 재배기술과 농업경영을 교육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 추진
- 청년 창업농 농업기술교육 강화
 - ✓ 창업농 비율 증가에 따른 농업 스타트업 교육센터 신설
 - ✓ 창농계획서 작성 컨설팅 강화
 - ✓ 역귀농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추진
 - ✓ 신·구 영농인 영농기술 매칭 프로그램 운영

7) 취약계층 일자리 및 주거지원 강화

연수내용

- 오사카시는 낙후지역 재생을 위해 ‘니시나리 마츠쓰쿠리위원회’를 발족하고 (주)나이스를 중심으로 낡은 건물 리모델링 및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공간비즈니스 제공
- 나이스는 노숙자에게 주거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일자리 찾기 지원 프로젝트인 ‘엘 챌린지’ 사업도 추진, 조인트벤처 공원협동관리 공동체를 설립해 공원 두 곳에 노숙자를 고용

추진배경

- 세계적으로 노숙자와 취약계층 문제는 큰 사회문제로 계속 남아 있어 재정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일자리 및 주거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
-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최근 저렴하고 단기간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3D프린터 주택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상용화단계에 돌입
- 친환경 에너지와 서민에게 '내 집' 주는 '3D 프린팅 주택' 보급으로 국가산단에 입주할 청년들에게 품질 높고 저렴한 주택을 보급하고 친환경 주택과 관련된 새로운 주택산업 육성

정책제언

- 취약계층 일자리 및 주거지원사업 추진
 - ✓ 노숙자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빈집,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주택 제공
 - ✓ 취약계층 대상 환경미화 및 시설 관리 중심의 공공일자리 확대
 - ✓ 고용된 근로자들의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교육 무료 제공
- 친환경 에너지와 서민에게 '내 집' 주는 '3D 프린팅 주택' 보급
 - ✓ 공기단축, 일손부족 해결, 건축비용 절감 가능한 주택 보급
 - ✓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 적정기술 3D 프린터 건축기술 보급
 - 노즐로 콘크리트를 층층이 뽑아내 24시간 안에 골조 완성
 - ✓ 주거권강화 위해 확장성뛰어난 3D 프린팅건축기술 지원
 - 콘크리트보다 싸고 내구력·내진력높은 Lavacrete개발
 - ✓ 단열 등 벽체에 필요한 여러 요소들을 통합처리하는 공정 개발
 - 배관과 전선도 3D 프린팅을 통해 한 번에 시공하는 기술

8) 국제 문화예술인 초청을 통한 활력만들기

연수내용

- 가미야마정의 지역활성화 우수 프로그램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는 외국인 예술가가 두 달간 가미야마에 체류하며 주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 초청 작가들은 레지던스 거주 기간 동안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을 제작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는 활동

추진배경

- 인구감소를 장점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으로 인구가 줄면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가미야마정의 ‘창조적 인구감소’ 전략 벤치마킹
- 국제 문화예술인들의 마을 정착을 위해 이주 지원금과 같은 일시적인 회유책보다는 ‘바뀌서 한달살기’, ‘마을커뮤니티 활동 참여’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선택

정책제언

- 창조적 인구감소 전략 채택
 - ✓ 인구감소를 장점으로 활용하는 역발상으로 남은 인구 역량강화 교육
 - ✓ 인구가 줄면 구성원들의 결속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활용
 - ✓ 가미야마정의 ‘창조적 인구감소’ 전략 벤치마킹
- 국제 문화예술인의 지역교류사업 추진
 - ✓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이 동시에 교환방문하는 ‘바뀌서 한달살기’
 - ✓ ‘마을커뮤니티 활동 참여’ 기회 제공
 - ✓ 국제 문화예술인을 정기적으로 지역에 초청
 - ✓ 지역주민과 함께 공공예술 프로젝트 추진
- 지역 국제 한달살이센터 설립
 - ✓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 등 택지개발사업과 연계
 - ✓ 한달살이 문화예술인의 명예시민 위촉
 - ✓ 시민-국제문화예술인 한달살기 숙박교환사업 지원

9) 세계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지역활성화

❖ 연수내용

- 가미야마정의 지역활성화 우수 프로그램인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는 외국인 예술가가 두 달간 가미야마에 체류하며 주민과 함께 예술활동을 하는 프로그램
- 초청 작가들은 레지던스 거주 기간 동안 전시회에 선보일 작품을 제작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문화 이벤트에 참여하는 활동 추진

❖ 추진배경

- 중장년의 건강을 지키면서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경제정책 중 하나로 평소에 꿈꾸어오던 문화예술 분야에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능력을 교육받은 중장년이 농촌에 내려와 세계 문화예술인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 교육시스템 구축
- 최근 국내외에서 한달살기 붐이 일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과 내국인이 자기 집을 서로 내주고 교환해서 한달살기를 하는 구매자를 연결하는 사업도 시작되는 추세
- 한달살기는 장기 체류형 관광객 확보는 물론, 관계인구 확대를 통한 미래 정주인구 유치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으로 체계적으로 육성

❖ 정책제언

- 2~3년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전문예술대학 유치
 - ✓ 지자체와 연계된 세계문화예술인이 지역에 와서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강의
 - ✓ 약 2-3년을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문화예술과정 수료
 - ✓ 일반 고졸자나 재수생보다 중장년층과 노인 중심의 특화교육 실시
 - ✓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지역에 정착 유도
- 농가 중심 한달살기 추진체계 구축
 - ✓ 한달살이 농가협동조합 결성, 방문객 교육문화공간 운영
 - ✓ 빈집정비 및 전원주택 조성사업과 연계
 - ✓ 국제 문화예술인 한달살이 거주자 명예군민 위촉
- 군민-외국인 무료 한달살기 숙박교환
 - ✓ 민간주도 숙박 교환 서비스 앱 가입 및 신청
 - ✓ 원어민과 연계를 통한 초등학생 영어교육 기회 확대

나. 농촌형 스마트시티 전략

1) 대중교통 기반 도심 압축도시 조성

연수내용

- 도야마시 콤팩트시티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작정 흩어진 시설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중심이 되는 도심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생활권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

추진배경

-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건강, 의료, 복지 등의 생활서비스를 집적화시켜 비용을 최소화하고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고령자가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압축도시 전략 채택 필요
- 도시기능이 압축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저성장 시대, 소멸위험에 진입한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물리적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정책제언

- 대중교통과 연계한 스마트 중심지 활성화
 - ✓ 읍단위 시가지 대상 철도와 버스를 비롯한 교통 중심의 압축도시계획 수립
 - ✓ 교통로 주변에 거주, 상업, 업무, 문화 등 도시기능을 집적
 - ✓ 도심과 거점, 거점과 거점을 잇는 트램, 전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확충
 - ✓ 대중교통 정류장 또는 터미널에서 자전거와 보행으로 목적지 접근 가능한 환경 조성
 - ✓ 에너지 절감과 오염물질 배출량까지 줄이는 스마트 도시환경 구축
- 읍면 단위 압축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
 - ✓ 기능별 구역 설정을 통한 거주 및 상업·업무 등 도시기능 집약 유도
 - 상업, 업무, 예술문화, 교류 등 시민에게 다양한 도시 서비스와 활력 제공
 - ✓ 주거, 직장, 상업 등 일상적인 도시기능들을 연계한 밀집 개발
 -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밀도와 토지의 혼합이용 유도
 - ✓ 효율적인 공공 교통체계를 도입하고 걷기와 자전거 타기 중심 도시 구축
 - 에너지 소비를 줄여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2) 리빙랩을 통한 보행자구역 설치

연수내용

- 연수단이 방문한 일본 토야마시를 비롯해 대부분의 도시들은 도심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 추진
- 도야마시는 도야마 역을 중심으로 7개의 전철 노선과 노선버스를 포함한 방사형 네트워크를 형성, 자동차 의존형 대중교통 시스템을 재정비, 도보 도시로 전환하는 중

추진배경

- 보행자 거리를 만들면 상권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상인의 반대와 거리만 지정하고 문화와 사람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겹쳐 일부 보행자 거리 정책이 중도하차하는 경우 발생
- 주민과 거버넌스를 만들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행자 구역을 설치하고 문화행사와 이벤트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성공한 도야마 시의 사례를 참고한 보행자구역 설치

정책제언

- 도심 보행자거리 운영
 - ✓ 보행자도로 지정을 위한 주민위원회 구성 : 자발적 추진체계 구축
 - ✓ 주민, 전문가, 기업에 의한 리빙랩 운영 :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설득 시스템
 - ✓ 보행자도로 예정지 공기질 측정·공개로 건강에 대한 관심 유도
 - ✓ 교육과 견학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다는 확신 부여
 - ✓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해 상가에 자전거 지원
 - ✓ 상가 매출액 감소시 보행자 전용도로 정책 재검토 약속
 - ✓ 지역주민 공청회 및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 협약 체결
 - ✓ 인도 폭을 넓힌 후 상인들에게 인도 사용 일부 허용
- 녹지와 쉼터기능을 갖춘 쾌적한 보행자길 조성
 -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의자, 가로수, 가로등, 바닥 판화 등 시설 보완
 - ✓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는 잔디블록과 넝쿨식물을 활용한 녹도 조성
- 보행자도로 차량통행 제한
 - ✓ 전면 통제하되, 평일에는 상가의 물품 이동을 위해 특정 시간대 제한적 통행 허용
 - ✓ 단계적으로 통제구역을 확대하되, 기타 특수한 경우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차량 통행 추진

3) 무료 전기 공공 시내버스 도입

연수내용

- 도야마시는 대중교통 이용 감소가 대중교통의 쇠퇴와 서비스 수준 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자동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노약자에게 전가된다고 보고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의 생활권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중
- 도야마시는 교통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교통약자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100엔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출 정기권 사업 추진

추진배경

- 도야마시처럼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을 늘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도 차도와 주차장 확보 정책에서 벗어나 대중교통과 보행 위주 정책으로 전환
- 대중교통 이용객의 획기적인 증가를 위해 교통 소외지역 중 마을버스 운행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버스로 1시간 이내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DRT 시스템을 도입하되 무료버스로 운영하는 것을 추진
- 청송군은 2023년 1월부터 모든 버스를 무료로 전환, 버스 이용객을 하루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 늘렸고, 신안군과 화성시는 65세 이상 등 선별적인 무료 버스 제공

정책제언

- **수요응답형 친환경 무료 전기버스 도입**
 - ✓ SK텔레콤, 현대자동차 등과 협약 체결을 통한 농촌형 수요응답형 버스 시범사업 실시
 - ✓ 지능형 운행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도입, 운행 안전도 향상
 - ✓ 주요 관광지 콘텐츠와 전기차, 킥보드, 자전거 등 연계·대체 이동수단 정보도 함께 제공
 - ✓ 1일 2대 운행, AI기반 배차앱 개발 및 이용자 중계 플랫폼 시스템 구축
- **도심 전기마을버스 제공**
 - ✓ 중요한 노선 중심으로 무료 전기마을버스 운행 : 전기마을버스, 자전거, 보행 위주 교통 설계
 - ✓ 마을버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도착시간을 파악하고 마을버스 운행
- **광역교통망 연계 버스와 지역 내부 순환버스로 이원화**
 - ✓ 시범운행 결과 대기시간 및 이동시간 효과 검증 후 다른 지역 확대
 - ✓ 승용차가 도심 외곽에서 차를 세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린환승주차장 설치

4) 초고속 통신망 활용 농촌지역 IT기업 유치

연수내용

- 파소나 그룹은 지역창생사업 초기에 오전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오후에는 자유롭게 예술활동을 하는 반농반예 프로젝트 운영
- 3년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평균연령 25.9세의 청년 3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참가자 일부가 아와지시마에 이주하는 성과를 거둠
- ✓ 파소나그룹은 폐교를 리모델링해 2012년 ‘노지마 스콜라’라는 이름으로 오픈, 농(農), 식(食), 학(學), 예(藝)를 컨셉으로 6차 산업화의 모델이자 주민 교류장소인 지역부흥 상징으로 재생

추진배경

- 현재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의 문화예술 욕구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 예총이나 농협과 연계하여 농사와 문화예술을 동시에 배우고 농촌에 정착하는 시스템 구축 검토
- 파소나그룹은 2020년 9월 아와지시마로의 본부 기능 이전을 발표하고 2024년 5월 말까지 본사 기능과 함께 1,200명의 직원을 이전예정, 현재 약 1,050명 이주

정책제언

- 위케이션과 초고속 통신망을 활용한 기업의 농촌 유치
 - ✓ 민박시설이 갖춰진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이나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 ✓ 빠른 인터넷 환경만 있으면 어디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IT기업 방문 상담
 - ✓ 정부의 초고속 통신망 사업 참여를 통한 기본 인프라 확충
 - ✓ 빈집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면 상담을 하고 사무실을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
- 폐교를 활용한 반농반예 교육거점 운영
 - ✓ 유치기업에 대한 농업 및 문화예술 교육 제공으로 지역커뮤니티 편입 촉진 효과
 - ✓ 폐교를 활용하여 반농반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거점 활용
 - ✓ 지역 산업 및 사업자와 제휴, 지역특산물 판매장, 가공장으로 활용
 - ✓ 관광 교류 거점 정비를 통한 고용 창출을 위한 시설 운영
 - ✓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및 교류센터로 활용

5)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연수내용

- 파소나그룹의 최초 창립 목표는 ‘육아를 마치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고 싶은 주부들의 능력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회사’,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응원하는 회사’를 만드는 것
- 이를 위해 지방창생 리더 육성, 회복 교육과 함께 ‘여성간부 후보 육성’을 핵심 목표로 액티브 러닝과 경력 지원으로 사회변혁을 가져올 혁신 인재를 육성
- 여성간부 후보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과제를 파악하고 시야를 넓히며 차세대 여성 간부 후보로서의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추진배경

- 일자리를 갖기 힘든 여성인력이 농촌에서 시간제 일자리나 프리랜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
- 인구소멸지역의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내 공공시설 중 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육아와 휴식 공간이 있는 융합형 원격근무 공간 제공

정책제언

- 전통상권 인근 아이돌봄 스마트워크센터 조성
 - ✓ 원격회의공간, 사무공간, 소규모 세미나실 , 아이놀이방 등
 - ✓ IT인프라, 사무공간, 회의실 제공, 아이돌봄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보육공간 조성
 - ✓ 독자적 공간 마련 힘든 소기업과 직장인 공동 사무공간 조성
 - ✓ 워크센터 보육공간 조성으로 워킹맘과 육아 대디의 편의 제공
 -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아이 부모에 의한 공동육아 시스템 도입

6) 시대변화에 맞는 공공도서관 혁신

연수내용

-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은 주민 1인당 1만 엔이 넘는 돈을 들여 건립한 도서관인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한 이유는 도서관이 소멸 위기를 맞은 지방경제를 되살리고 인구감소를 늦추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
- 과거 재미없고 조용한 곳이라 여겨지던 도서관의 기능과 디자인에 혁신적인 변화를 도입하고 ‘떠드는 도서관’이라는 역발상으로 도서관 이용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데 성공

추진배경

- 최근 누워서 책읽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책 읽어주는 사람도서관(휴먼 라이브러리)는 시대변화에 맞게 공공도서관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변화를 시도하는 움직임 활발
- 전통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넘어서서 떠들고 만나고 교류하는 장소로 공공도서관을 변화시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문화시설을 통한 지역소멸 예방

정책제언

- **고객맞춤형 공공도서관 디자인 및 이용방법 혁신**
 - ✓ 전통적인 도서관 이미지를 넘어서 편리성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공공도서관 건립
 - ✓ 한국십진분류법(KDC) 대신 주 고객층의 관심사별 도서 분류체계 도입
 - ✓ 도서관 건축 디자인과 의자 등 소품의 혁신을 통한 주민쉼터 기능 추가
 - ✓ 도서관을 사람들이 어울리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지식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

7) 빈집활용 매입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연수내용

- 파소나그룹은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에게 아파트 건립을 촉진하고, 건립된 아파트는 회사 차원에서 임대해 직원들에게 제공
- 회사에서 주택을 짓거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현지 주민들이 소유한 건물을 임대하는 형태로 이주 인력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중
- 가미야마연대공사의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육아 세대 유입을 축으로 한 ‘공동주택’ 프로젝트로 가미야마 회사 16개를 포함한 건설 기술자와 지역 학생,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식물로 주택을 건설, 주택자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

추진배경

-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계속 머물러서 귀농귀촌인이나 생활인구에게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
-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주요 사업을 분석하여 지역으로 오는 주택수요자에게 빈집을 활용한 매입 임대 공공주택 공급사업 및 지역지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주택 공급

정책제안

- 귀농귀촌인을 위한 매입임대 공공주택 공급
 - ✓ LH에서 하는 매입임대형 공공주택사업 유치
 - ✓ LH-건물주-지방자치단체 3자 상생협약 체결
 - ✓ 1,2등급 빈집활용 협약체결 및 리모델링
 - ✓ 청년·신혼부부 및 귀농인 우선 분양제도 마련
 - ✓ 리모델링 후 공공주택 분양
- 지역지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주택 공급
 - ✓ 귀농귀촌인과 이주민, 계절근로자 대상
 - ✓ 지역 정착기간(3년)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는 공동주택 공급
 - ✓ 새로운 주민에게 기회를 주고 지역사회 동화를 위해 정착기간 완료시 다른 주택으로 이주
 - ✓ 지역 주택기업만 공사 자격을 부여하여 새로운 주택 기술 공급과 지역 주택경기 활성화

다. 지역특화자원 활용 전략

1) 산림보육 개념을 활용한 산림복지 확대

연수내용

- 도쿠시마는 삼나무를 특화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쿠시마현 현산재 이용촉진 조례’를 책정하고 ‘삼나무 아이 목욕광장’을 만들고 도쿠시마 나무활용 현민회의 설치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은 지역 특산물인 목재의 교육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관광을 촉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커뮤니티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시설
- 나무장난감 미술관은 지역의 자연자원과 특산물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지역 홍보와 낙후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사례

추진배경

- 국내에서도 많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활용한 브랜딩과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과 같이 산림과 보육을 연계한 특화체험시설 필요
- 우리나라도 지자체별로 특산물을 활용한 전시관을 만들어 지역을 홍보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전시·체험·교육 공간은 부족한 상황
- 특산물을 지역축제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방문해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또는 유아나 어린이들을 맡길 수 있는 돌봄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 검토

정책제언

- 지역 농림수산자원과 보육을 연계한 특화체험시설 조성
 - ✓ 삼림자원을 비롯한 지역 고유자원 활용 보육·교육 문화공간 조성
 - ✓ ‘목욕’의 개념정립 및 산림자원 활용 유아돌봄 체험공간 조성
 - ✓ 숲체험원과 연계한 지역 산림자원 전시·교육공간 운영
 - ✓ 지역 특산물 브랜딩을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
 - ✓ 특산물과 지역 특화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
- 산림문화 체험마을 운영
 - ✓ 목재박물관, 목조건축학교설립, 목공예 체험, 목조주택 기초과정 교육
 - ✓ 생활목공Class, 공유공방 운영, 산림치유산책로·투어코스 개발

2) 산림활용 촉진조례 제정 및 임업 육성

연수내용

- 나무장난감 미술관을 지은 도쿠시마현은 산림자원을 산업과 관광에 활용하기 위한 ‘현산제 촉진 조례’를 제정
- 이 조례는 산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업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삼림 인재육성, 나무제품 개발, 지역 특산나무 홍보, 목욕시설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도쿠시마 나무장난감 미술관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의 99%는 도쿠시마에서 조달했으며, 현 내 20개의 목재소의 제품을 활용,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

추진배경

-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면적의 70% 내외가 산림으로 산림자원을 복지와 관광, 임업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
- 경제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제수림 면적은 부족하지만, 임업 부산물을 활용한 에너지원 개발이나 치유를 비롯한 관광이나 목욕과 같은 교육복지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
- 산림부산물은 대형산불 등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방치된 산림부산물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정책제안

- **산림 활용 촉진 조례 제정**
 - ✓ 산림자원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
 - ✓ 산림자원 활용 촉진 민관위원회 구성
 - ✓ 임업전문인력 양성, 목주주택 보급, 경제수림 조성, 산림복지시설 지원 명시
 - ✓ 5년 마다 산림활용 촉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다양한 목적의 산림자원 개발**
 - ✓ 산림부산물 활용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원 개발
 - ✓ 목욕 개념의 기후 위기 및 산불 대응 교육시설 설치
 - ✓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개발
 - ✓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추진

3) 산림과 결합한 돌봄시설(목욕) 확대

연수내용

- 2005년부터 시작된 도쿠시마현의 ‘임업 프로젝트’는 임업 종사자 증가, 임업 생산체제 강화 및 가공체제의 구축 등을 목표로 추진
- 전 세대에 걸쳐 목재를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나무와 교류하고, 나무에서 배우고, 나무로 연결된다’라는 ‘목욕’ 강조

추진배경

- 산림자원 활용을 강화하면서 돌봄도 추진하는 숲체원 및 산림박물관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체계 구축

정책제언

-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자체 박물관 건립
 - ✓ 임업 관계자와 욕망 단체 네트워크 강화
 - ✓ 기후위기시대 산림자원의 중요성 홍보
 - 나무의 장점을 알리고 숲과 나무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배우고 체험하는 목욕 개념 정립
 - ✓ 숲체원처럼 강사나 욕아 보육 전문가가 상주하는 산림놀이기 시설 확대
 - ✓ 놀이와 보육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 개최

4) 지역산업 연계 커뮤니티대학 설립

연수내용

- 가미야마는 도쿄 IT기업 유치를 계기로 가미야마의 지역활력사업 취지에 공감한 기업과 산가들의 기부금으로 2023년 4월 마루고토기술전문학교 설립
- 이 학교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 과정을 결합한 5년제 학교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등 IT 기술과 웹디자인, 건축설계 등의 디자인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

추진배경

- 가미야마와 같은 지역활력화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에서 근무가 가능한 IT기업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취업할 인력을 양성하는 커뮤니티 대학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
- 기부금과 지자체 지원금을 가지고 시립대학, 군립대학 형식의 대학을 만들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제공, 지역에 남아서 취업과 창업을 할 인재 양성으로 지역 소멸 극복

정책제언

- 연령 제한 없이 모두가 학생인 대학 설립
 - ✓ 젊은층만 입학하는 학교가 아니라 중장년과 노인도 입학하는 평생교육대학
 - ✓ 모든 성인(중졸자, 고졸자, 외국인, 농업인, 기술자, 여성)에게 열려있는 개방형 대학
 - ✓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 활용,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배우는 직업기술 글로벌 대학 유치
- 지역공동체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 2년제 전문대 과정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단기과정 동시 운영
 - ✓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 교육 병행
 - ✓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연계체계 구축
 - ✓ 4년제 대학 편입 및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운영
- 새로운 성인학습자 등장에 따른 평생교육 담당
 - ✓ 고령사회와 귀농귀촌 중장년이라는 새로운 학습자 등장에 맞는 교육시스템 구축
 - ✓ 지역주민 무상교육,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점당 저렴한 학비 납부
 - ✓ 농업인력 재교육, 사회봉사활동 교육, 귀농귀촌인 교육, 은퇴자 재교육 등 추진
 - ✓ 농업 및 전략산업 관련 학과 개설 및 온·오프라인 교육

5) 농촌지역 국제학교 유치

연수내용


- 파소나그룹은 아와지섬 국제학교(Awaji Island International School)를 운영, 2세~초등 학생 연령의 자녀에게 영어, STEAM 교육, 음악, 댄스 등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한 부모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입사한 직원에게는 안정적인 수입과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풀타임 또는 단시간 근무 등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

추진배경

- 농촌지역의 다문화 가정은 초기 이주여성이 노년층에 접어들고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이들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중요
- 부족한 농업인력을 채우기 위해 국내로 들어오는 농업 계절노동자와 이민자 확대에 대비하고 농촌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에 국제학교 설립 추진

정책제언

- 농촌지역 국제학교 설립 기준 완화
 - ✓ 교육부의 예산 증액을 통한 초중등 국제학교 지원
 - ✓ 이민자의 지역정착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 ✓ 국제학교 입학 자격 확대 및 수업료 할인 방안 모색



지역 특화 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해

공정과 자율에 기초한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